

#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 원양 산업

제 1188 호  
(2025년 12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 월간발행(비매품)

## Contents



### 협회소식

-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회 국정 토론회 개최 / 04
- K-원양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워크숍 참석 / 05
- 제22차 WCPFC 연례회의 참석 / 06
- 제29차 ICCAT 연례회의 참석 / 07
- 포클랜드 수산청과 업계 간 간담회 개최 / 08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09



### 이달의 요리

- 통오징어짬뽕 / 15



### 해외수산정보

#### ■ 국제유가 동향

- 12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64달러 / 16

#### ■ 참치어업 동향

- 태국 통조림 1~3분기 수출량, 전년도 수준 유지 / 17
- 美 사모아 의원, 태국 통조림 19% 상호관세 유지 요구 / 19

- 日 9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가격, kg당 900엔대 / 20
- 최신 연구 “기후 변화, 참치 어업에 직접적 영향” / 21
- 태평양 도서국, 날개다랑어 관리 체계 마련 추진 / 22
- ICCAT 의장, 향후 위원회 우선순위 밝혀 / 23
- ICCAT, 회원국 간 쿼터 분배 문제 고심 / 24
- 태국 1~3분기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 급감 / 25
- EU 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법안 대폭 완화 / 26
- EU 어업계, EU 참치 냉동 관련 새 규정 환영 / 27
- EU 어업위, 선단 현대화·탈탄소화 민간투자 모색 / 27
- 美 법원, 범블비 대상 강제 노동 소송 진행 결정 / 28
- ILO-FFA, 참치선원 권리 강화 협약 체결 / 28
- 태국 참치업계, EU-태국 FTA 신속 추진 촉구 / 29
- 에콰도르 참치 수출 성장세, 태국 이상 / 30
- FAO “참치 무역 호황…가공능력 발전이 과제” / 31
- 정보 기반 해양 단속 확대 / 33
- 범블비, 멕시코에 참치 가공공장 신설 / 33
- 베트남산 참치, 美 수출 시 무관세 적용될 수도 / 34
- 英 참치 통조림 소비, 2024년에 15% 증가 / 35
- EU 가공업계, EU-태국 FTA서 참치 제외 요구 고수 / 36
- 필리핀, 튀르키예 참치 수출 기회 모색 / 36
- EU, 소비자 보호 체제 개편 / 37
- 에콰도르 참치 수출, 20억 달러 달성 전망 / 38
- ICCAT 연례회의서 대서양 서부 가다랑어 MP 채택 / 39
- ISSF, 전재·혼획·FAD 규정 등 강화 / 40



##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회 국정 토론회 개최

### 원양산업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혁신 필요



우리 협회는 지난 12월 4일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회 국정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문대림·어기구·조경태·조승환·김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후원하였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류정곤 소장은 ‘원양산업 발전 방안’으로 △원양형 톤세제 도입 △농업·연구·해·양식업과 동등한 세계개편 △선원 의무승선 비율 유연화 및 선원 유출 방지 방안 마련 △선박 신조 지원 확대, 제도 요건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김희용 과장은 적은 선단 규모로 전세계 해역에서 우수한 수산자원을 확보

해 온 산업적 가치와 북극·남극 등 미래 어장 개척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이 좌장을 맡아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강동양 과장, 부경대 이경훈 교수, 동원수산 왕태현 대표,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등이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영규 회장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와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기후변화, 국제 규제 강화, 선원 구인난, 어선 노후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넘어선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혁신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 K-원양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워크숍 참석

정부·업계·NGO 등이 모여 K-원양산업 미래 설계



우리 협회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대전 KW 컨벤션에서 개최된 ‘K-원양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와 업계 간 관계를 기존의 규제 중심 구조에서 협력과 동반성장의 관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업감시센터,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GO, 언론사, 업계, 협회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원양어업 성과와 발전 방향,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케이프타운협정이 여는 미래 원양 산업, △투명한 바다 책임있는 어업에 대한 주제로 한 발표와 어장, 어구·기술, 선원, 경영 등 네 개 분임으로 나누어 심층토론이 이어지며 현장의 의견과 분야별 발전 방안이 공유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워크숍의 논의를 시작으로, K-원양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제22차 WCPFC 연례회의의 참석

### 남방날개다랑어 관리절차 도입 합의



우리 협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2차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수석대표)을 비롯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조업감시센터, 피지 대사관, 업계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협회에서는 해외협력 1부 박재운 부장 외 3명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중

국·대만 및 태평양 도서국의 어획 비중이 높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해 새로운 관리 절차를 도입하기로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FFA 회원국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0년 이후 건조한 선박에 대해 공해상 전재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해상 전재는 IUU어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다수의 지역 수산관리기구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관행임을 강조하였다. 해당 사안은 회기간 절차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 제29차 ICCAT 연례회의 참석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 67% 확대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29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김노윤 사무관을 수석대표로 우리협회에서는 백상진 대리, 해외수산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대서양 참다랑어, 열대다랑어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동부대서양 참다랑어 할당 보존조치가 최종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부대서양 참다랑어 어획한

도는 기존 대비 67% 증가한 368.94톤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가 대규모 조업국과 소규모 조업국 간 어획한도 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로, 참다랑어 쿼터 증대에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눈다랑어 TAC(총허용어획량) 상향이 가능하다는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든 국가가 동일한 어획한도 증가율(약 14%)을 적용하는 제안서가 논의되었으나, 개발도상국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황다랑어와 함께 회기간 절차를 통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 포클랜드 수산청과 업계 간 간담회 개최

2026어기 대비 선박 안전 관리 및 자원 관리 제도 등 검토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포클랜드 수산청 부청장과 드라곤사 대표 및 부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업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포클랜드 정부는 2026어기를 앞두고 △조업 선박의 안전 관리 △자원 관리 제도 개편 △국제 기준 이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포클랜드 측은 26어기 허가 조건과 지침 이행과 관련하여 4가지 중요사항으로 수밀문, 라이프자켓(비상용/작업용), 안전벨트/안전줄 상태, 선박충돌 방지를 위한 조타실 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점 점검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일렉스오징어 어업에 대한 ITQ 제도 통합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자원 변동성이

큰 어종 특성을 고려하여 TAC 대신 노력량(척수) 기반 접근 등도 검토 및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 포클랜드 측은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포클랜드 주민에 대한 경제적 환원, 조업선사의 경제성과 투자 유인 등을 위해 ITQ 제도는 필요하며, 2026년까지 의견 수렴, 2027년 제도 설계, 2028년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 중임을 공유하였다.

한편, C188 이행, 전자보고 시스템 도입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현안도 함께 논의 되었다. 포클랜드 측은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한국 선박의 경우, 전반적인 안전 관리 및 선원 복지 이행 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세네갈, 감염병 확산

- 세네갈에서는 감염병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리프트밸리역은 9월 21일 북동부에서 처음 발생한 후 중부와 남부로 확산하여, 11월 30일 기준 누적 530명(사망 31명)이 보고되었고 490명은 완치되었다. 감염은 생루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엠폭스는 8월 22일 첫 확진 이후 9명 확진, 2명 의심, 사망자는 없고 확진자는 모두 회복됐다. 대부분 다카르에서 발생하였다. 두 질병 모두 지역 확산 가능성이 있어, 세네갈 보건당국은 감시와 방역 대응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620
	3.4~10kg	1,520
	1.8~3.4kg	1,420
	1.5~1.8kg	1,270
	1.5kg 미만	1,070
눈다랑어	10kg 초과	1,270
	3.4~10kg	1,270
	1.8~3.4kg	1,270
	1.5~1.8kg	1,120
	1.5kg 미만	920
가다랑어	3.4kg 초과	1,470
	1.8~3.4kg	1,420
	1.5~1.8kg	1,270
	1.5kg 미만	1,070

###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641	'25.11.26

##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피지, 어업법 개정

- 피지 정부는 태풍 시즌을 앞두고 수바항에 방치된 선박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버려진 선박이 해상 안전, 환경 보호, 항만 운영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확인된 44척 중 17척을 철거하였으며,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 나. 피지, IUU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 피지는 IUU 어업으로 매년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광대한 130만km<sup>2</sup> EEZ와 제한된 단속 역량 부족으로 인해 취약성이 높다고 밝혔다.
- 이에 정부는 첨단 감시기술, 해군 순찰, 법제 강화, FFA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개정 어업법에는 단속 권한 확대와 연안 고정벌금 제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 다. 피지, 수산업 혁신 선언

- 피지는 세계어업의 날을 맞아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Blue Transformation)'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년 주제인 "수산업 부문의 청색 변혁"은 어업이 국민 복지, 고용, 식량안보, 문화유산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약 130만km<sup>2</sup>의 EEZ를 보유한 피지는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 관리 현대화, 혁신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며, 정부는 블루 태평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라. 피지, 일본과 전략적 협력 확대**

- 피지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는 일본과 ‘로마바타-키즈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교육·문화교류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총리의 도쿄 방문 중 55년간 지속된 양국 우호 관계를 재확인한 뒤 공식 서명된 것이다.
- 이에 따라 피지는 기후회복력, 재난대비, 해양 안정성,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확대된 지원을 얻게 되며, 경제·문화 분야까지 포괄적 협력이 심화할 전망이다. 일본의 참여는 2050 블루태평양 전략과 ‘평화의 바다’ 구상에 대한 지원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태평양 도서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600	로인가공용(PAFCO)

**바.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otal	MGO	1,170	'25.12.8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인니, 장기 어업 개혁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규모 어업 종사 어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어업관리 국가행동계획 (RAN-PPSK)’을 공식 발표했다. 전체 어획량의 95%가 소규모 어업에서 발생할 만큼 해당 부문이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에 핵심적이지만, 어민은 자금 조달, 장비·시설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정부는 FAO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내 법률을 토대로 사회보장 강화, 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적 경제역량 제고를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측정어업을 포함한 5대 핵심 프로그램을 추진해 어획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 인니, 수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 수산물 품질 관리 및 시장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협회(IPMAPHERI)를 공식 출범시켰다. 협회는 전문가 역량 강화, 수산업체 지원, 국민 대상 수산물 영양 교육을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 동 협회는 ▲수산식품 품질·안전성 향상 ▲수산 가공·유통산업 고도화 및 부가가치 확대 ▲국내외 시장 분석과 시장 확대 지원 ▲국가 영양급식(MBG) 프로그램용 안전한 수산물 공급 ▲지속가능한 유통·가공 체계 확산 등 기능을 중점 수행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협회에는 현재 1,050명의 수산물 품질 전문가와 478명의 시장분석가가 등록돼 있어 향후 역량 강화와 산업 지원 체계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1,050	'25.12.4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업계, 환경단체 간 대립 심화

- 뉴질랜드 수산업 단체(Seafood New Zealand)는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만델 연안 저층 트롤 금지 조치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업계는 어업 관리 권한은 국가 차원의 수산업법에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자원관리법을 근거로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면,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어업 규제가 아니라 해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당한 환경관리 조치라고 반박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뉴질랜드 어업 규제 체계에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바라쿠다	2L	2,050
	L	1,950
	M	1,850
	S	1,7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더니든	MGO	850	'25.12.2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인도양 해양안보 협력 강화

- 모리셔스는 2025년 11월 12~14일 플릭양플락에서 IMO, EU, IOC 및 서부 인도양·아텐만 국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DCoC 제다 개정안(Jeddah Amendment) 고 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모리셔스 정부는 광대한 EEZ의 감시·감독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해양국가로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 EU는 서부 인도양 해양안보를 위해 연간 8천 만 유로 이상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티 행동강령(DCoC)은 제다 개정안 이후 해적 대응을 넘어 인신매매, 밀수, IUU 어업, 환경범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현재 정보공유·공동훈련·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나. 인도양 해상 위협 재부상

- 2025년 10월 말부터 소말리아 인근에서 해적 활동이 급격히 재개되며 서부 인도양 해상 안전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해적들은 다우(dhow) 모선을 활용해 최대 800해리까지 공격 범위를 확장하며 자동 화기와 RPG를 사용한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 11월 6일 HELLAS APHRODITE호 피랍 사건을 비롯해 여러 선박이 공격을 받으면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홍해 후티 사태로 인한 국제 해군 전력 공백 ▲과거 몸값 지급에 따른 금전적 유인 증가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한 지역 불만 ▲해적 조직과 무장단체의 연계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Engen	MGO	690	'25.12.8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관

### 가. 선박 불법 조업 감시 강화

- 아르헨티나는 오징어 조업 시즌을 앞두고 EEZ 경계선 '마일 201' 해역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외국 선박 148척이 확인되었다. 당국은 시즌 중 500척 이상이 더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중국 어선 '루칭위안위 205호'가 대륙붕 인근에서 격자형 항해를 반복해 불법 조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지역은 남대서양 핵심 어장이 위치한 전략 구역이며, 같은 선단의 불법조업 사례도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해상·공중 감시를 확대하며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 나. 수산업 경쟁력 회복 위해 구조적 개선 요구

- 마르델플라타 수산 가공 상공회의소는 최근 과도한 세금, 수수료, 노동비, 물류비 등 누적된 비용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세제·노동·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며, 수출 관세 인하와 기술 도입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 다. 2026년 오징어 조업 조기 개시 승인

- 아르헨티나 연방수산위원회는 INIDEP 분석과 CAPA 요청을 토대로 2026년 오징어(일렉스) 시즌의 조기 개시를 승인했다. 조업은 단계적으로 1월 2일, 1월 7일, 1월 12일부터 순차 허용된다.
- 이는 1월 중순 이전 산란을 마치는 집단이 남부 산란 개체군과 겹치지 않아 조기 어획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 한편, 아르헨티나 해양경비대는 남서대서양 201마일 공해는 매년 중국을 비롯한 대규모 외국 오징어

조업 선단이 2~5월 집중하며 IUU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Epsol YPF	MGO	1,220	'25.12.7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 가. 가나, 수산자원 보호 정책 발표

- 가나 마하마 대통령은 연안 소규모 어업 전용구역(IEZ)을 기존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고, 케이프 쓰리 포인트 해역을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 신제정 「수산 및 양식업법 2025(Act 1146)」에는 IUU 어업 처벌 강화, 공동관리 체계 구축, 어민·어상인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민·어상인 회의에서는 공동체 기반 모니터링, IUU 대응, 전통 지식과 과학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정부는 또한 국가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추진 중이며, 대통령과 수산부 장관은 전통 지도자와 공동체의 역할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 나. 가나, 국제협력 기반 해양 치안 강화

- 가나 경찰청은 해양경찰대의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터키산 순찰정 4척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UNODC, 미국 대사관, 일본 정부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함정은 고속·고안정성을 갖추었다.
- 내무장관은 이번 도입을 해양 안전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블루 이코노미 발전을 위해 강력한 해양 집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가나의 긴 해안선과 EEZ가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신규 순찰정이 불법 어업·밀수·해양 범죄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 가나, ICCAT 대응으로 어업현대화**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는 스페인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참치류의 총허용어획량(TAC)과 국가별 쿼터를 재조정하고, 12건의 권고와 3건의 결의를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카리브해 SIDS 국가의 청새치 관련 제재가 일부 완화되고, EMS·VMS 도입 등 규정 준수 사례가 공유되었다. 또한 2026년 1월 발효될 BBNJ 협정에 대비한 이행 준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이후 가나를 포함한 대서양 연안국 선망선 규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핵심은 ▲TAC·쿼터 준수 ▲조업 해역 제한 ▲3.16~4.30 급어기 시행 ▲FAD 사용 제한 ▲상어 혼획 규제 강화 등이다.
- 가나 선망선단은 가다랑어·황다랑어 중심 조업을 유지하되 VMS 강화와 보고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이는 EU 시장 접근성 확보와 직결된다. ICCAT의 이번 결정은 가나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IUU 방지, 지역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850
	10kg 이하	1,550
가다랑어	3.4kg 초과	1,500
	1.8~3.4kg	1,350
	1.5~1.8kg	1,200
	1.5kg 미만	1,050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50	'25.11.30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관

**가. 호주, 중국 견제 협력 지속**

- 호주는 PNG 독립 이후 최대 후원국으로 재정·개발 지원을 지속해 왔다. 최근 중국이 PNG 서부주에서 대규모 수산 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외교적으로 차단하는 등 전략적 영향력 유지에 적극적이다. 서부주는 호주와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 호주는 PNG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공동어로 조약 재검토 등 민감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나. 중국, PNG 경제적 영향력 압도적**

-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PNG 진출을 본격화하여 현재 상권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 도로·교량 등 무상 인프라 지원, 친중 정치기반 강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성사 등 전략적 접근이 결합되어 있다. 최근에는 중국계 연승어업 사업자가 PNG 조업 허가를 취득하며 현지 수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

**다. 일본, PNG 정부의 신뢰도 매우 높아**

- 일본은 JAICA를 중심으로 40년 이상 PNG에 개발·수산 협력을 제공해 왔다. 초기 PNG 연승어업도 일본 기업이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약 9,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 경비선 제공, 부두·수산시장 건설 등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PNG 정부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 입어로 인까지 자발적으로 논의될 정도다.



한편, Yamaha는 PNG 연안어업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라. 필리핀, 수산업 투자에 진심

- 필리핀은 PNG 선망어업과 참치캔 공장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선박 노후화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지 등록 외국 선박 활용, PNG 국적선 운용 등을 통해 조업허가(VD) 비용을 줄이며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확보했다.
- 고용 창출과 가공 수산물 수출을 20년 이상 지속하면서 PNG 정부와 높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선장·기관장 고용 비중이 높아 한국과 경쟁 관계도 존재한다.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847	'25.12.8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게재 >





# 통오징어찜뽕



##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손질한 통 오징어 1마리, 꽃게 1마리, 조개 1줌, 새우 2마리, 숙주 1줌, 대파 1대, 당근1/4개, 양파 1/2개, 청경채 1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썩갠 2개, 고추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 양념: 고추기름 2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다진마늘 1큰술, 굴소스 2큰술, 간장 3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치킨스톡 1개, 물 1L

##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양파, 당근은 채 썰고, 홍고추, 청고추는 어슷썰고 청경채는 반으로 썬다.
- ② 냄비에 고추기름을 두른 후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서 향을 낸다.
- ③ ②의 냄비에 청경채를 제외한 썰어놓은 ①의 야채를 볶는다.
- ④ ③의 냄비에 꽃게, 조개, 새우를 넣고 볶는다.
- ⑤ ④의 냄비에 양념을 넣고 볶다가 물, 치킨스톡, 청경채를 넣어준다.
- ⑥ ⑤가 어느정도 끓으면 손질한 통오징어를 넣고 썩갠을 올려 완성한다.

# 12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64달러

12월 10일 기준 647달러

12월 10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2.74달러, WTI 가격은 58.46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2.21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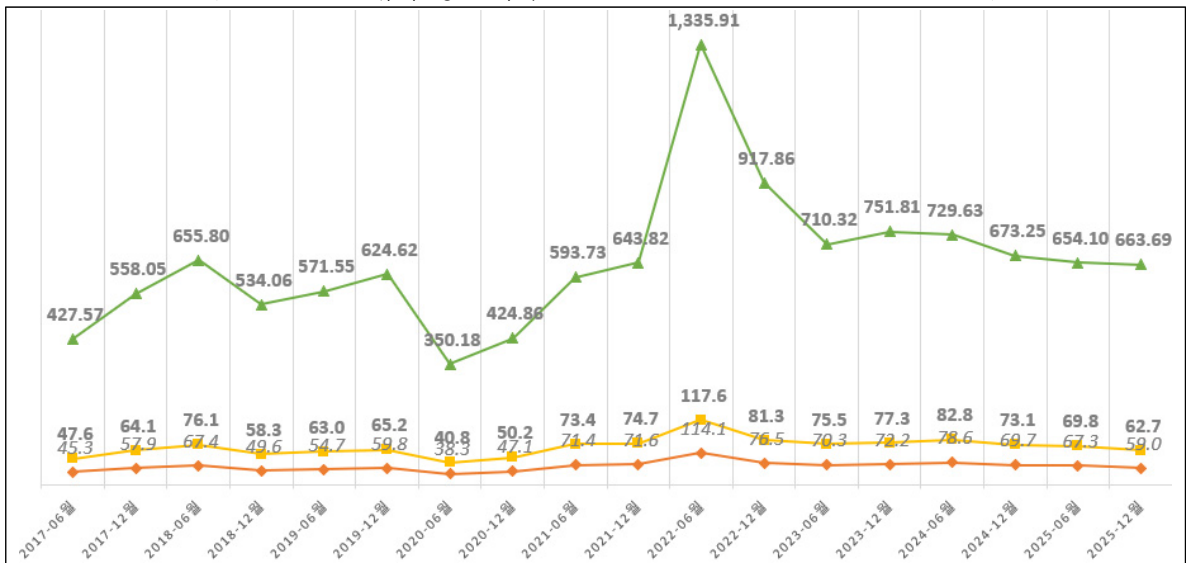
동일 날짜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47.00달러로 전월 동기 평균 가격인 751.50달러 대비 13.9% 하락하였다.

12월 평균(12.1~12.10) 가격은 663.69달러로 전월 전체 평균 가격인 733.11달러 대비 9.5%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체 평균인 673.25달러보다 1.4% 하락하였고, 지지난해 12월 전체 평균인 751.81달러보다는 11.7% 하락하였다.

한편, 2025년 전체 평균(1.2~12.10) 가격은 670.9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730.83달러 대비 8.2% 하락하였고, 지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806.77달러 대비 16.8% 하락하였다.

12월 초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62달러, WTI 58~59달러로 안정됐다. 미국·비OPEC+ 생산 증가와 중국 등 주요국 수요 둔화가 겹쳐 약보합세가 이어졌고, 사우디의 아시아향 가격 인하가 추가 하락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월별 유가 평균 가격(위에서 아래로 싱가포르 MGO, Brent, WTI 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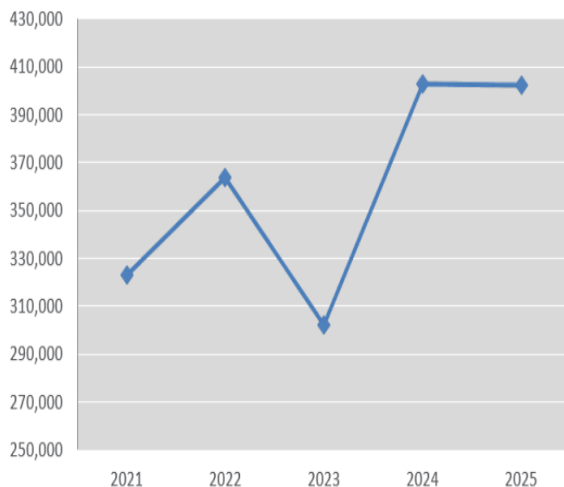


## 태국 통조림 1~3분기 수출량, 전년도 수준 유지 약 40만 톤 기록

올해 1~9월 태국의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2분기 수출량은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침을 겪었다. 3분기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3분기 동안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수출량은 증가하였으나, 평균 가격은 하락하였다.

2025년 1~3분기 동안 태국의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40만 2,078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669톤 감소하였다. 이 중 1분기 수출량은 13만 4,481톤, 2분기 수출량은 12만 4,392톤, 3분기 수출량은 14만 3,205톤이었다. 1~3분기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4,391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3% 하락하였다.

THAILAND: Export Trend Of Canned Tuna In M/T, 3Q



〈 태국 2021~2025년도 1~3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량 그래프(톤) 〉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증대〉

1~3분기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7만 4,300톤이며, 평균 가격은 톤당 4,842달러로, 수출량과 평균 가격 모두 전년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태국산 통조림에도 적용되면서, 태국 가공업체는 2025년의 시작을 불안정하게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브랜드, 소매업체, 무역업체 등이 통조림 수급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025년 상반기 미국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4%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행정부는 태국산 제품의 수입 시 19%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4월 발표되었던 상호관세율인 36% 대비 하락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미국의 3분기 태국산 통조림 수입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관측된다.

리비아행 수출량은 3만 8,745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6,711톤 증가하였다. 리비아행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3,978달러로 3% 하락하였다. 리비아는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인하여 달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2024년부터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무역에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태국산 통조림 수입이 증가한 또 다른 시장은 이집트이다. 태국은 1~3분기 동안 이집트에 전년도 동기 대비 약 8,000톤 이상 증가한 3만 3,981톤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2,917달러로

주요 시장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호주행 수출량은 2만 7,925톤으로 5% 감소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2% 하락한 톤당 5,125달러를 기록하였다. 호주 시장은 해양관리협회(이하, MSC) 인증 제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며, 높은 평균 가격도 이러한 점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행 수출량은 2만 5,118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평균 가격은 6% 하락한 톤당 5,245달러였으나, 주요 시장 중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일본행 수출 물량의 대부분은 일본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인 날개다랑어 통조림이었다.

중동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량은 각각 17%, 6% 감소한 2만

1,853톤, 1만 9,222톤을 기록하였다.

이스라엘행 수출량은 계속되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4% 감소한 1만 4,270톤을 기록하였다. 평균 가격은 4,375달러였다.

남미 시장 중 칠레와 페루로의 수출량은 각각 9%, 16% 증가하였다.

영국행 수출량은 5,355톤이며, 가격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톤당 5,717달러였다. 영국행 수출 물량은 대부분 MSC 인증 대낙시(pole-and-line) 어업으로 제조된 PL(Private Label, 어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인 상품) 상품 또는 타이유니온 산하 기업인 '존 웨스트(John West)'의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3일자

### Thai Canners Kept Business Intact

THAILAND: Export Canned Tuna 3Q  
In M/T Major Destinations, CFR Value per 1 M/T

	2023		2024		2025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United States	60,025	\$4,728	74,087	\$4,790	74,300	\$4,842	0%	1%
Libya	25,504	\$4,170	32,034	\$4,087	38,745	\$3,978	21%	-3%
Egypt	11,224	\$3,149	25,807	\$3,081	33,981	\$2,917	32%	-5%
Australia	24,052	\$4,948	29,504	\$5,230	27,925	\$5,125	-5%	-2%
Japan	26,672	\$5,308	25,244	\$5,570	25,118	\$5,245	0%	-6%
Saudi Arabia	23,774	\$4,273	26,349	\$4,412	21,835	\$4,143	-17%	-6%
Canada	14,043	\$4,988	22,048	\$4,881	20,347	\$4,807	-8%	-2%
United Arab Emirates	14,667	\$4,230	23,007	\$4,587	19,222	\$4,268	-16%	-7%
Israel	9,899	\$4,405	21,526	\$4,448	14,270	\$4,375	-34%	-2%
Chile	11,522	\$3,732	12,226	\$4,089	13,286	\$3,903	9%	-5%
Peru	4,205	\$4,549	8,655	\$4,638	10,081	\$4,670	16%	1%
Russian Federation	5,136	\$4,202	6,421	\$4,362	8,139	\$4,360	27%	0%
Switzerland	3,988	\$5,207	5,970	\$5,421	6,099	\$5,283	2%	-3%
United Kingdom	2,578	\$6,004	4,600	\$6,105	5,355	\$5,717	16%	-6%
Jordan	2,585	\$4,154	2,976	\$4,152	4,325	\$4,069	45%	-2%
Others	62,465	\$4,114	82,297	\$4,140	79,050	\$4,178	-4%	1%
<b>Grand Total</b>	<b>302,338</b>	<b>\$4,469</b>	<b>402,747</b>	<b>\$4,511</b>	<b>402,078</b>	<b>\$4,391</b>	<b>0%</b>	<b>-3%</b>

Source: Thai Customs

Powered By Atuna Analyst

Currency used in 2025: USD 1 = THB 32.467

Currency used in 2024: USD 1 = THB 33.968

Currency used in 2023: USD 1 = THB 35.470

## 美 사모아 의원, 태국 통조림 19% 상호관세 유지 요구 태국산 통조림, 美 행정부 결정 따라 관세 면제될 수도 있어

아메리칸사모아 지역구의 우이파아탈리 아마타(Uifa'atali Amata) 미연방 하원의원은 미국-태국 무역협정 논의와 관련해 태국산 참치 통조림에 적용되는 19% 상호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타 의원은 이 관세가 미국산 수산물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세가 면제될 경우 미국의 참치 가공산업이 구조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녀는 동원산업이 운영하는 스타키스트 아메리칸사모아 공장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아마타 의원은 11월 3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태국 무역협정 체결을 축하하면서도, 태국산 참치 통조림이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태국산 상온보관 식품은 총 3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 중 12.5%는 기본 관세, 19%는 상호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부속서 III를 통해 19% 관세 면제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며, 아마타 의원은 참치 제품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을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태국·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저렴한 노동력과 규제 환경을 기반으로 세계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했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식량 안보를 약화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태국산 참치 통조림의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결정은 상호관세 제도의 '무역 불균형 해

소'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칸사모아 경제에서 참치 가공산업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파고파고의 스타키스트 공장은 약 2,300명을 고용하고 있어 지역 최대 민간 일자리이며,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아마타 의원은 관세 완화가 이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내부 참치 산업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메리칸사모아 공장은 미국 선망선·연승선뿐 아니라, 높은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대만 선단에서 원어를 구매하고 있으나, 미국산 원료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외 가공시설도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피지에서 가공된 날개다랑어 로인(loin)은 범블비(Bumble Bee) 샌디에이고 공장으로 들어갈 때 32%의 관세가 부과된다. 타이유니온(Thai Union)은 미국 조지아주 라이언스 공장에서 치킨 오브 더 씨(Chicken of the Sea) 제품을 생산하며, 현재는 오일 참치 제품 중심이지만 향후 염수 제품 생산 확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11월 5일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이 비상 명령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수의 대법관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향후 관세 정책 전반의 합법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로 평가된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6일자

## 日 9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가격, kg당 900엔대

7월 대비 100엔 이상 상승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9월 다랑어류 수입은 신선·냉장 제품 354톤(전년 대비 5% 감소), 7억 3,100만 엔(4% 감소)이었고, 냉동 제품은 1만 8,594톤(30% 증가), 187억 8,300만 엔(45% 증가)을 기록했다. 가공품은 4,403톤(1% 증가), 35억 8,200만 엔(2% 증가)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내장 제거)의 수입 단가는 kg당 902엔으로 33% 상승했다. 이 가운데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은 kg당 913엔(36% 상승)이었으며, 대만산 눈다랑어가 900엔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2월 944엔 이후 1년 반 만이다. 두 달 전인 7월에는 783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관계자는 “가격 상승 폭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도요스 시장 가격은 10월에 들어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될 10월 통관 통계에서도 상승폭이 줄어들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이어진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

렛의 수입량 누계는 2만 6,201톤으로, 전 시즌 동기(2만 6,209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평균 단가는 kg당 2,505엔으로 전 시즌 대비 17% 상승했다.

신선 제품에서는 호주산 남방참다랑어 수입량이 83톤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평균 단가는 kg당 1,313엔으로 10% 하락했다. 이는 눈다랑어·황다랑어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남방참다랑어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멕시코산 양식 참다랑어는 128톤으로 91%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월별 수입량은 올해 5월 92톤을 제외하면 대부분 월 100톤을 넘었다. 평균 단가는 2,212엔으로 6% 하락했으나, 기존 30kg 전후 중심에서 북미 시장에서 유통되는 80kg 전후의 대·중형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1월 7일자

冷凍メバチ(台湾産)の輸入単価(CIF)



## 최신 연구 “기후 변화, 참치 어업에 직접적 영향”

### 다국간 협력 및 대응력 있는 관리 조직 필요성 제기

500개 이상의 지속가능 인증 어업을 분석한 결과, 다랑어와 새치 등 이동성이 높은 어종을 목표로 하는 어업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양관리협의회(MSC)가 주관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의 ‘공동해양프로젝트(Common Oceans Project)’, ‘해양관리기금(Ocean Stewardship Fund)’이 후원하였다.

연구의 주 저자이자 MSC 데이터과학 관리자인 로렌 커너는 “어업은 적응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리 조직의 대응력이 부족할 경우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 연구는 크릴, 다랑어, 흰살생선, 바닷가재 등 19개 수산물을 어획하는 다양한 업종의 어업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다랑어류 등 고도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 청어 등 소형 부어류 대상 어업과 대구, 해덕, 가자미, 넙치, 아귀 등 흰살생선 대상 어업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동성이 강한 어종은 수온이 낮은 바다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어장과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타국 관할 수역이나 공해 수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그 결과 관리 공백이 생기고 남획의 위험

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대서양 참다랑어는 수십 년 만에 영국 영해에서 다시 관측되고 있으며, 태평양 다랑어류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MSC는 “각국 정부 간 쿼터 할당을 둘러싼 대립이 깊어져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11월 10일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각국 정부의 국제 협력을 촉구하였다.

MSC는 “개체군의 분포 변화에 따라 각국의 어획 할당을 조정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특정 종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계속 어획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공동해양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조 젤라즈니(Joe Zelasney)는 “기후가 변화하면서, 다랑어 어업에서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모두 발생하겠지만, 개발도상국인 일부 도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젤라즈니는 “각국 정부와 5개 다랑어 RFMO가 변화를 앞두고 경제 및 식량안보 보호 등을 위하여 공해 다랑어 어업 관리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미나토신문, 2025년 11월 7일자



## 태평양 도서국, 날개다랑어 관리 체계 마련 추진

### 다가올 WCPFC 연례회의 채택 목표

태평양 도서국들이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관리 체계에 합의하며, 오는 12월 열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17개 WCPFC 회원국을 대표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 수산국(FFA)은 최근 회원국들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보존 및 관리 조치(CMM)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관리 절차(MP)와 TAC 할당 및 모니터링 체계가 포함되며, 목표는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기존 관리 체계가 어획량 감소와 도서국 연승선단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한 대안으로, 과학 기반 접근을 토대로 수년간의 협력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FFA는 이러한 체계가 “일관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어획 전략”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안된 관리 절차는 날개다랑어 자원을 생물학적 한계 기준점보다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구성되었으며, TAC는 3년 주기로 검토된다. 또한 변동 폭은 주기당 최대 5% 감축 또는 10% 증가로 제한되며, 이는 어선단과 가공업체의 계획 수립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할당 체계는 연안국 및 군소 개발도상국(DC)의 EEZ 내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TAC 배분 기준은 EEZ 75%, 공해 25%의 비율을 반영해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강화된 준수 및 모니터링 조치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 모니터

링(EM)을 확대하고 100% 전자 보고를 의무화하며, 감시 및 전제 관리도 강화한다. 불균형한 보존 부담을 피하고 기후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시 별도로 제안되었다.

FFA는 오는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WCPFC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이 조치를 채택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조치가 통과된다면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WCPFC 수역의 완전한 어획 전략이 확정되며, 이는 이전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도 갖는다.

글로벌참치연합(GTA)은 FFA의 관리 체계가 채택될 경우 전 세계 참치 시장, 특히 지속 가능한 조달을 중시하는 구매자 및 공급망 파트너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GTA 관계자는 이번 제안이 WCPFC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의 “지속 가능하고 과학 기반의 관리”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조치가 적용될 경우 자원 안정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공급망 이력추적성이 강화되며, 태평양 참치 어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실질적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A는 과학 기반 TAC와 다년 관리 주기가 공급 변동성을 줄여 장기적인 조달 계획과 투자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 관리 체계가 해양관리협의회(MSC) 표준에 부합해 WCPFC의 지속가능성 인증 자격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1일

## ICCAT 의장, 향후 위원회 우선순위 밝혀

### 참다랑어 관리, 상어 혼획 관리, BBNJ 준비 등 강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에르네스토 페나스 의장은 1월 17일 개막하는 올해 연례회의를 앞두고 “가능한 한 많은 현안을 진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서양 참다랑어의 새로운 관리 계획 도입, 황다랑어 조치 강화, 유엔 공해조약(BBNJ) 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ICCAT의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는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목표들도 함께 설명했다.

먼저 그는 대서양 참다랑어 자원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6~2028년 적용될 새로운 관리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9월에 발효된 BBNJ 협정은 공해상 해양생물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ICCAT은 이 협약의 기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FMO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ICCAT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황다랑어 자원은 우려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최근 수년간 어획량이 11만 톤 한도를 크게 넘겨 연간 14만 톤에 달했고, 페나스 의장은 “남획 상태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는 상황이 길어질 수 없다”라며 조속한 쿼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안국과 NGO가 요구해 온 FAD(어군집어 장치) 등록제는 여전히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FAD 설치량 제한이 중요하며, 배치한 FAD에 대해 각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다랑어 자원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서부 대서양 관리 계획 옵션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NGO들도 ICCAT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과학평가에서는 동·서부 가다랑어 모두 남획 확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페나스 의장은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최우선 의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어 혼획 관리는 ICCAT의 오랜 고민거리다. 페나스 의장은 ICCAT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종별 차이·지역별 자원상태·비의도적 혼획 특성 등 복잡한 요인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대서양 청상아리는 지속 가능하지만, 남대서양은 그렇지 않고, 다른 종은 명백히 위협을 받고 있어 관리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상어는 연승어업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혼획되는 경우가 많고, 어종 식별이 쉽지 않으며 데이터의 왜곡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 ICCAT 협약은 상어 규제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정서가 추진되었으나 비준이 충분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페나스 의장은 향후 ICCAT의 핵심 과제로 BBNJ 협정 이행 준비, 어획권 할당 문제, 해양보호구역 30x30 목표와의 연계, 그리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 의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서양 주요 참치 자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며 ICCAT이 지속 가능한 관리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조적 전환과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4일자

## ICCAT, 회원국 간 쿼터 분배 문제 고심

### 대규모 어업국 및 개도국 간 이권 문제 등 얽혀

ICCAT 연례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황다랑어 어획 한도 초과 문제를 포함한 여러 중요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쿼터에 의존하는 어업 관리 조치에 있어, RFMO 회원국 간의 쿼터 분배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다. 에르네스토 페나스 ICCAT 의장은 어업권 배분이 분쟁의 대상인 이유를 설명하였다.

페나스 의장은 “과거 어획 실적은 매우 일반적인 참고 자료일 뿐, 사실상 배분은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의장은 “이것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국가들이 쿼터를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그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의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페나스 의장은 배분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사안이며, 아시아 연승업계와 유럽 선망업계 등 업종 간, 국가 간 경쟁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다. 의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참치 어업권이 주로 EU, 일본, 대만 등 ‘기존 조업 강국’들에 할당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반면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열망 또한 지극히 정당하므로, 영구적인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의장은 또한 명확한 배분 없이는 TAC를 통제할 좋은 시스템을 고안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의장은 황다랑어의 경우 연간 3만 톤이 초과 어획되고 있지만,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

인지 명확하게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단순히 전통적 어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치 조업은 공해상 조업도 포함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이 사용된 원양 어선이 필요하지만, 모든 국가가 이를 갖춘 것은 아니다. 페나스 의장은 “따라서 개도국들이 더 많은 쿼터, 특히 상당한 양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기되는 질문은 ‘선박 없이 스스로 조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외국 투자자에게 넘기기 위해 쿼터를 확보하려는 것인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개도국들이 합작회사를 통해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고 쿼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페나스 의장은 개도국의 쿼터 권리를 모두가 이해하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위원회가 개별 국가의 주권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쿼터를 보유한 국가에서 진정한 ‘조업국’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장은 “하지만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하였다. “개도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많은 선단은 3대 대양을 누비는 글로벌 기업이며 이들은 타국 투자에 익숙하다. 제3국 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개도국이 더 많은 쿼터를 원하는 것이 자국 투자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타국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인지 그 의도와 관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8일자

# 태국 1~3분기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 급감

## WCPO 공급 감소로 인도양산 증가

2025년 1~3분기(1~9월) 동안 태국 가공업체들의 냉동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이 전년도 대비 1/3 가까이 감소하였다. 중서부태평양(WCPO)에서 조업하는 모든 주요 선망어업국의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몰디브와 인도네시아 선단의 물량만이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9월 태국의 전체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은 54만 4,491톤으로 2024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았다. 그러나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40만 1,145톤으로 전년도 대비 28%나 급감하였다. 톤수 기준으로는 15만 2,198톤 감소하였는데, 올해 WCPO 조업 선단의 어획 실적이 2024년에 비해 현저히 부진한 것이 원인이다. 톤당 평균 가격은 69달러 상승한 1,673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 방콕 가다랑어 시세는 1,500~1,700달러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WCPO산 원어 수입은 총 17만 4,372톤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대만, 마이크로네시아, 나우

루, 한국 선단으로부터의 물량이 전체 손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톤당 평균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다.

바누아투는 감소폭을 4,926톤으로 방어하였다. 키리바시, 투발루, 마셜제도 국적 선단의 물량은 각각 9,674톤, 1만 1,687톤, 1만 2,425톤 감소하였다.

몰디브와 인도네시아는 WCPO 원어 부족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렸으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도양 동부에서 조업하는 이 두 국가 중에서, MSC 인증 어업을 보유한 몰디브의 태국 수출 물량은 1만 3,231톤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톤당 1,774달러로 주요 공급국 중 최고치였다. 인도네시아의 태국 수출 물량은 전년도 대비 193%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산의 평균 가격은 8%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공급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4일자

### WCPO Fishing Suppliers Dropped Trade

Thailand: Import Of Frozen Whole Round Skipjack In M/T, Q3 Cumulative  
Divided Into Major Orgins, USD Per 1 M/T

	2023		2024		2025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Taiwan	58,478	\$1,831	102,183	\$1,559	69,982	\$1,665	-32%	7%
Micronesia	41,456	\$1,816	91,803	\$1,668	53,034	\$1,681	-42%	1%
Nauru	39,171	\$1,866	69,129	\$1,605	48,423	\$1,665	-30%	4%
Korea	38,893	\$1,877	87,500	\$1,589	43,517	\$1,664	-50%	5%
Maldives	45,246	\$1,865	25,876	\$1,596	39,107	\$1,774	51%	11%
Vanuatu	28,004	\$1,822	39,630	\$1,610	34,704	\$1,653	-12%	3%
Indonesia	6,817	\$1,860	8,014	\$1,481	23,511	\$1,599	193%	8%
Kiribati	21,123	\$1,849	32,979	\$1,592	23,305	\$1,660	-29%	4%
Tuvalu	13,138	\$1,843	29,720	\$1,549	18,033	\$1,697	-39%	10%
Marshall Islands	9,408	\$1,639	26,660	\$1,730	14,234	\$1,717	-47%	-1%
Others	63,987	\$1,885	39,850	\$1,570	33,296	\$1,639	-16%	4%
<b>Grand Total</b>	<b>365,721</b>	<b>\$1,848</b>	<b>553,343</b>	<b>\$1,602</b>	<b>401,145</b>	<b>\$1,673</b>	<b>-28%</b>	<b>4%</b>

Source: Thai Customs

Powered By Atuna Analyst

# EU 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법안 대폭 완화

## '기업 경쟁력' 명분

EU 의회가 최근 표결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과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 강화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NGO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두 지침은 아동노동, 환경오염, 강제노동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를 방지하도록 대기업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회 표결(찬성 382표, 반대 249표)로 통과된 완화안은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실사·보고 의무를 제한적으로 전환했다.

CSDD 개정안에 따르면 실사 의무 대상은 직원 5,000명 초과 및 연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한정된다. 또한 모든 협력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은 폐지되고, 이미 확보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 도입된다. 소규모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 마련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CSRD의 경우, 보고 의무는 직원 1,750명 초과·연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으로 축소된다. 보고 기준 또한 간소화되어 질적 세부 사항 요구가 줄고, 부문별 보고는 의무에서 자발적 체계로 변경되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파트너로부터 과도한

정보 요구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에너지 공급 불안 등 경제·정치적 이유로 다국적 기업과 일부 EU 회원국이 규제 약화를 요구해 온 흐름과 맞물린 결정으로 평가된다. 극우 및 중도 성향 정당들은 "경쟁력 회복"과 "기업 활동 단순화"를 내세우며 법안 축소에 찬성했다.

유럽 주요 참치기업인 Bolton, Jealsa, Nauterra 등을 포함한 해산물·식품 공급망 기업들은 이번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보고·실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시장에서 윤리적 조달 기준이 빠르게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유럽 기업들이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4일자



## EU 어업계, EU 참치 냉동 관련 새 규정 환영

'26년 1월 27일 발효...-18℃ 유지능력·모니터링 요구

EU 어업단체 Europeche는 EU가 새로 도입한 참치 염수 냉동 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EU에 참치를 공급하려는 모든 냉동선은 어획물 온도를 -18℃로 지속 유지하고, 염수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EU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

Europeche는 이 조치가 일부 선단의 재냉동 관행을 차단해 히스타민 증가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선단은

이미 높은 기술·위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규정이 EU 시장 접근 조건과 EU 선단의 기존 기준을 일치시켰다고 강조했다.

Europeche 참치 그룹의 마틀레 이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스리랑카산 참치에서 발생한 히스타민 오염 RASFF 경고 사례를 언급하며, EU 선단에 적용되는 높은 위생 기준이 EU 시장 진입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3일자

## EU 어업위, 선단 현대화·탈탄소화 민간투자 모색

조업일수 아닌 어구 사용 기준 어업노력량 측정 제안 外

EU 의회(이하, MEP) 어업위원회 의원들은 EU와 민간 부문의 합작으로 EU 어선단의 현대화와 탈탄소화를 촉구하고 있다.

어업위 측은 기후 변화, 해수온 상승, 어족 자원 감소 등을 시급한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EU 어선단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0.015%를 차지하고 있으나, MEP는 EU의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선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어업위 측은 11월 11일 채택된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의 EU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은 탈탄소화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선박, 항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EU, 개별 국가, 민간의 합동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어업위 의원은 또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혁신적·선별적 어구 사용을 지지하였으며, 어업 노력량 측정 방식을 개정하여 조업일수가 아닌 실제 어구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어업 규제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며, EU 의회는 이 보고서에 대해 12월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2일자



## 美 법원, 범블비 대상 강제 노동 소송 진행 결정

### 범블비 측 기각 요청 거부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1월 12일,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제기한 참치기업 범블비 상대 소송에 대해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심리할 것을 결정했다. 원고는 범블비가 선상 인권 유린과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중국 국적 어선에서 참치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해 왔다.

범블비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후 문제 선박 관련 공급망과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법원은 범블비가 관련 선박의 인권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직원 교

육 및 내부 통제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선원들이 올해 3월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TVPRPA)’에 따라 제기한 것이다. 범블비는 6월 소송 근거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으나, 원고 측은 8월 재차 소송 지속을 요구했다.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급망 내 인권 책임에 대한 기업의 의무 범위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4일자

## ILO-FFA, 참치선원 권리 강화 협약 체결

### 노동 문제 관련 협력 예정

국제노동기구(ILO)와 태평양도서국포럼(FFA)은 중서부태평양(WCPO)에서 조업하는 참치 선단과 기타 선박 승선원의 인권·노동 기준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11월 중순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FFA는 이번 협약이 태평양 수산업 선원 복지와 노동 환경에 대한 지속적 우려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점에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작업장 안전 확보, 공정한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 강제 노동·아동 노동·인신매매 근절, 근무 환경 개선, ILO 협약 비준 지원 등이 포함된다. FFA의 노안 데이비드 파콕 사무국장은 이번 MOU가 선원 권리 보호와 복지 증

진의 의미 있는 성과이며, 뉴질랜드 지원으로 추진 중인 ‘FFA 어선 노동 기준 프로젝트 2단계’의 이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NGO 보고서는 WCPO에서 조업하는 대만·중국 연승선단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6월 오세아나는 중국 어선의 IUU 어업 및 인권 침해 연루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WCPFC는 2024년 제21차 총회에서 노동과 선원 복지 개선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채택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9일자

## 태국 참치업계, EU-태국 FTA 신속 추진 촉구

### '에과도르와 동등한 대우' 요구

태국 참치산업협회(이하, TTIA)는 최근 발표한 백서를 통하여 EU-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진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TTIA는 태국의 참치 부문이 이미 식품 안전, 노동 권리, 환경 표준 등 EU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및 보존제품 수출국인 태국은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하여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강해졌다.

TTIA는 FTA 체결을 통한 태국과 EU 양측의 이익 증진을 강조하였다. TTIA에 따르면 태국 측은 디지털 추적성, 인증,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이를 통한 태국 생산업계의 EU 프레임워크 충족, 숙련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U는 식량 안보 및 경쟁력 강화, 가공 및 유통 분야 부가가치 고용 유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TIA는 백서를 통하여 EU가 이미 페루, 에과도르, 한국 등 주요 가공국을 상대로 참치 무역을 자유화했다고 지적하였다. TTIA는 EU가 태국을 상대로도 안전장치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EU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럽 어업 단체인 Europeche는 아시아 공급업체들이 유럽 선단과 동일한 표준 아래에 운영되지 않는다면 무역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자주 표명하였다. 최근 Europeche는 EU 시장 보호를 EU 의회

등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태국 가공업계 관련 소식통들은 태국이 스페인 및 기타 유럽 통조림 공장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공급업체로부터 참치를 조달하고 있으므로, 태국이 낮은 표준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은 불공평하다고 전하였다.

TTIA는 태국 부문이 "이미 EU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공업체들은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을 유지하며,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통조림까지의 추적성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태국과 EU 간의 FTA 협상은 2023년 3월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9월 협상 라운드는 투자, 금융 서비스, 상품 무역, 지속가능 개발과 같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페인 수산물 가공업체 협회 ANFACO-CYTMA는 태국이 EU 시장에서 공정 경쟁에 필요한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치 제품의 FTA 적용 대상 제외를 요구하였다.

현재 EU 관세 24%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2024년 EU 블록에 연간 1만 1,000톤 이상(수출액 기준 약 5,600만 달러)의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Europeche는 관세 철폐 시, 이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7일자

## 에콰도르 참치 수출 성장세, 태국 이상

2025년 상반기 수출 성장 15%...태국 3%

에콰도르가 전 세계 참치 가공품·통조림 제품 수출에서 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신 세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올해 수출량은 15% 증가한 반면, 1위인 태국의 수출량은 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FAO는 9월 초 열린 수산 무역 소위원회 제20차 회의 발표를 목적으로, 전 세계 어업 및 양식 현황을 분석하였다.

FAO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2025년 상반기 참치 가공품·통조림 제품 수출량은 16만 4,000톤 이상으로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하였다. 1위인 태국의 수출량은 약 27만 톤이었다. 3위인 중국의 수출량은 8% 감소하였고, 4위인 스페인은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필리핀의 수출량은 11% 감소하였으나, 세계 순위 5위를 유지하였다.

해당 통계를 발표한 FAO의 글로브피시(Globefish) 프로젝트 사회 문제 및 국제 무역 컨설턴트인 소니아 다폰테(Sonia Daponte)는 에콰도르가 세계적인 참치 수출 강국이며, 지난 몇 년간 성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미 대륙 지역에 대한 참치 및 기타 수산물 제품 수출을 선도하는 국가로,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한다. 그 뒤를 칠레(22.4%)와 캐나다(14.7%)가 따르고 있다.

CEIPA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24년에 막대한

양의 원어를 공급받았고, 2025년에도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의 공급량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에콰도르는 지역 가공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에콰도르의 참치 제품 수출 물량의 70%는 만타에서 가공된다. 만타, 과야킬, 포소르하에 위치한 에콰도르 참치 가공시설의 연간 원어 가공 능력은 약 50만 톤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4년에는 약 68만 2,000톤을 가공하였다.

에콰도르 자국 선단의 연간 어획량은 일반적으로 25만 톤에서 30만 톤(2024년 제외)이며, 그 외의 물량은 외국 선단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에콰도르 주재 FAO 대표인 게르다 바레토는 “에콰도르는 자급자족하며 동시에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식량 안보에 중요한 국가이다.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다. CEIPA는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방향성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바레토에 따르면 전 세계 참치 어업 부문의 지속가능 어업 준수율은 86%로, 전체 어업 및 양식 부문의 준수율이 62%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에콰도르는 참치 통조림 및 기타 제품의 추적성을 어획 시점부터 공급망 전체에 걸쳐 디지털화 및 자동화하는 통합 양식 및 어업 시스템(SIAP)을 운영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1일자

## FAO “참치 무역 호황…가공능력 발전이 과제”

### FAO, 장기 참치 시장 분석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참치 무역량과 어획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참치를 가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공급 및 소비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FAO 시장 컨설턴트인 윌리엄 그리핀은 지난 9월 11~12일 스페인 비고에서 열린 제12차 ANFACO 세계 참치 컨퍼런스에서 “참치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되고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해산물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핀은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 지역에서 가공 인프라 확장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전체 공급망이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25년간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은 50%나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가다랑어가 전체 어획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황다랑어가 약 30%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다른 종의 어획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된 참치 중 가공되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였다.

그리핀은 “참치 가공 물량은 2014년에 약 26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5년의 수요 충격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그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일시적이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전체 어획량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인당 참치 소비량은 연간 440g으로 감소하였

다. 그리핀은 “인구 증가는 가공 역량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업계가 적응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이다”라고 말하였다.

참치 가공은 정체된 반면, 참치 국제 무역은 2000년 이후 무역량 기준 75%, 무역액 기준 225%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했을 때 실질적인 무역액 증가는 76%에 그쳤는데, 이는 실질 시장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시사한다고 그리핀은 지적하였다.

〈태국 시장 1위 유지…신규 경쟁국 다수 등장〉

태국은 여전히 가공 참치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지만, 시장 환경은 빠르게 분산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미의 에콰도르가 특히 유럽 시장에 반가공 참치 제품을 공급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핀은 “이러한 공급 분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장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시장의 회복력도 향상하지만, 동시에 잘 조정된 투자와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기존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미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은 여전히 많은 양의 가공 참치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핀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눈에 띄는 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이것이 소비자 기반 확대를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몇 년간 참치 가격, 특히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가격은 공급 및 수요 역학 변화로 인하여 주기적



인 변동성을 보였다. 2022년 강한 글로벌 수요는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는데, 특히 황다랑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리핀은 “황다랑어 가격은 2022년 초 대비 60% 이상 급등한 후, 2023년에 하락하며 안정화되었다”라고 밝혔다.

2025년 중반 현재 황다랑어 가격은 kg당 약 2.50 달러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한편, 가다랑어 가격은 2023년 최고치에서 9% 하락하고 2025년 초 대비 6% 하락하는 등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겪었다.

그리핀은 “이러한 변동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소비자 수요 변화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참치 부문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라며 “현재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광범위한 시장이 가공 및 무역 부문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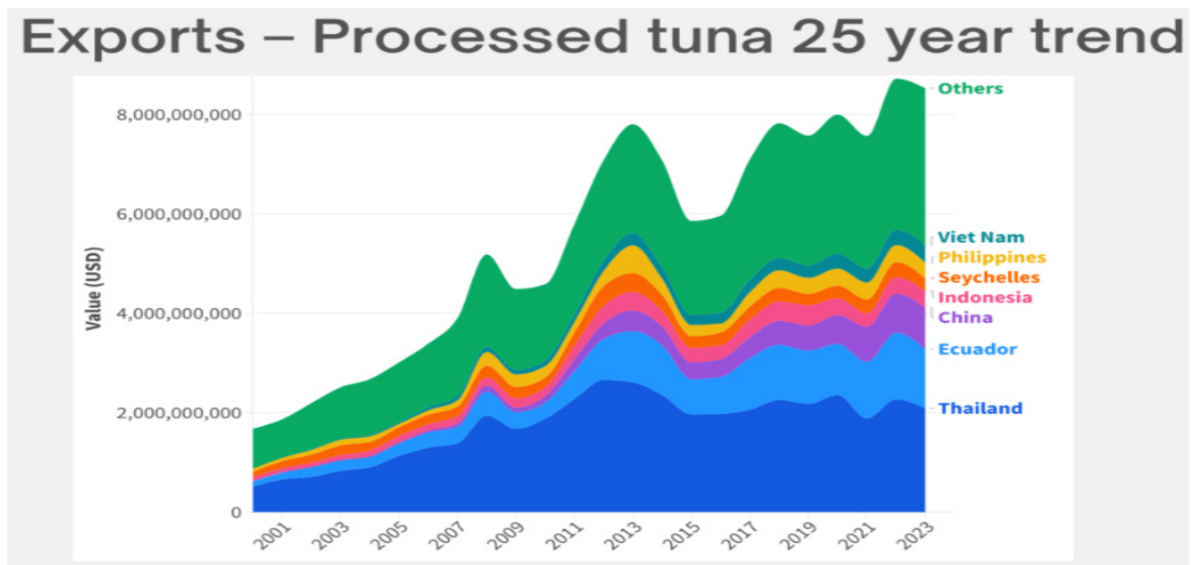
한편, 지속가능성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최신 FAO 글로벌 어족 자원 현황 검토에 따르면, 전 세계 어획량의 86%는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에서 나오지만, 참치의 상황은 그 이상으로 긍정적이다.

그리핀은 “모니터링 대상 참치 자원의 약 87%가 개체수 기준으로,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이다”라며 “물량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면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92%가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수의 다른 어업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수치”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유지는 효과적인 자원 모니터링과 책임 있는 생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FAO는 추적 대상을 1971년 146개 자원에서 현재 2,50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FAO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어업 및 양식)은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85%까지 증가해야 한다. 그리핀은 “이러한 성장은 가공 역량에 대한 진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1일자



< 지난 25년간 국가별 참치 가공품 수출액 추세 그래프 >

## 정보 기반 해양 단속 확대

### FFA 주도 연례 감시 작전

글로벌 해양 감시기능 제공 기업 ‘스타보드 메리타임 인텔리전스(Starboard Maritime Intelligence)’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의 조직적인 단속 작전을 통해, 솔로몬제도 수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적발되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수산청(FFA)’이 주도하는 이번 연례 감시 임무에는 지역 당국들과 첨단 해양 정보 기술이 총동원되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어선 ‘Hua Sheng 1호’는 IUU 어업을 겨냥한 ‘쿠루쿠루(Kurukuru) 작전’ 하에 솔로몬제도 수역에서 나포되었다.

스타보드 메리타임의 분석 모델이 ‘인디스펜서블 리프(Indispensable Reef, 3개의 산호초 섬으로 구성된 솔로몬제도 수역 내 보호구역)’ 구역 내에서

Hua Sheng 1호의 이상 활동을 감지하였고, 분석가들은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선박의 신원과 활동을 검증하였다.

현지 경찰은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 위치한 FFA 지역 수산 감시 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해상으로 함정을 급파해 Hua Sheng 1호를 나포하였다.

스타보드 메리타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중서부 태평양에서 정보 주도형 다자간 수산 단속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이다. 당국은 총 3,000만 km<sup>2</sup>에 달하는 광활한 순찰 구역에서 126척의 선박을 검문하고, 11건의 ‘고위험 관심 접촉’ 사례를 식별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1일자

## 범블비, 멕시코에 참치 가공공장 신설

### 북미 생산 거점 확장

미국 참치 가공기업 범블비 시푸드(Bumble Bee Seafood)가 멕시코 푸에르토 치아파스에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참치 가공 공장을 설립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확대한다. 멕시코 정부와 범블비 경영진은 최근 현지에서 공장 가동을 공식 발표했으며, 회사는 향후 3년 내 연간 200억 멕시코 페소(약 10억 8,000만 달러)의 수익 창출과 3,000명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생산 품목과 가공 규모, 그리고 제품이 멕시코 내수용인지 미국 수출용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범블비의 미국 시장용 주력 공장은 현재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자리 잡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4일자

## 베트남산 참치, 美 수출 시 무관세 적용될 수도

### 美-베트남 무역협정 무관세 적용 후보군 중 하나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이 10월 말 체결되면서, 미국이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 상호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명령 14346호 부속서 III에 따라 추가로 지정될 '0% 관세 적용 품목'에 양국 수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는 이번 논의에서 여러 참치 제품이 유력한 면세 후보군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후보 품목으로는 신선·냉장 날개다랑어(HS 03023100), 냉동 참치 로인·필렛(HS 03048700), 6.8kg 초과와 비캔·비오일 가공 참치 및 가다랑어(HS 16041440)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VASEP은 이들 품목이 실제로 0% 관세 대상이 될 경우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산 참치의 최대 수입국이다. 2025년 상반기 베트남의 대미 참치 수출액은 1억 8,3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특히 냉동 로인·필렛과 가공 제품은 미국 외식업, 레스토랑, 슈퍼마켓 유통망에서 확고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세 정책 변화는 베트남 수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높은 관세율과 물류비 상승은 베트남산 제품의 미국 내 공급가격을 끌어올려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 에콰도르·태국·필리핀 등과 비교해 베트남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0% 관세 적용은 베트남 기업들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관세 면제 품목의

공식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VASEP은 베트남 기업들이 충족해야 할 규정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 이력 추적성, 지속가능성 기준, 각종 인증 요건 등이 미국의 강화된 수입 규정과 연동되어 있어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IUU 방지, 공급망 투명성, 인증 절차는 베트남 참치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된다. VASEP은 기준 미준수 시 0% 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원료 조달부터 가공·수출 단계까지 높은 투명성과 규정 준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베트남 참치 산업은 이미 로인·필렛·대형 가공제품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지속가능 소비 트렌드와도 부합한다. 상품 표준화, 품질 인증 확대, 공급망 디지털화 등은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VASEP은 향후 6~18개월 안에 참치 제품이 실제로 0% 관세 적용을 받게 되면 2024~2025년 정체 국면을 벗어나 수출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큰 기회는 스스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0일자

# 英 참치 통조림 소비, 2024년에 15% 증가

## 중국산 통조림 수입 2024년에 급증

영국 수산업 지원기관 Seafish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참치는 2024년 영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수산물로 나타났다. 특히 상온보관 참치 제품(주로 가다랑어)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체 수입 중 참치 제품이 9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영국의 수산물(냉동·신선 포함) 전체 수입액은 4억 6,440만 파운드(약 6억 620만 달러)이며, 수입량은 10만 6,985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10만 3,612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억 3,180만 파운드(5억 6,360만 달러)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간 수입 실적을 보면, 2023년 수입량 9만 157톤이 가장 낮았으며, 2020년·2022년·2024년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에콰도르는 영국 참치 시장의 1위 공급국 지위를 유지했다. 2024년 에콰도르산 대영국 수출량은 15% 증가한 2만 7,619톤, 수출액은 1억 880만 파운드(1억 4,190만 달러)로 집계됐다. Seafish는 영국이 EU에 이어 에콰도르산 참치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와 영국의 소비자 수요 증가 속에서 에콰도르산 통조림이 EU산의 대체 공급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에콰도르 선단의 기록적 가다랑어 어획 실적도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브랜드별로는 프린스(Princes) 제품의 2024년 수입량이 1만 4,608톤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6,030만 파운드로 감소해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셸산과 가나산 수입은 각각 1,963톤, 1,221톤 증가했으며, 두 국가는 각각 타이유니온(IOT 공장) 및 파이오니어 푸드에서 존 웨스트(John West)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산 수입의 급증이다. 중국산 참치 통조림은 2019~2023년 동안 영국 연간 수입량의 0.1% 미만이었으나, 2024년 4,341톤을 기록해 주요 공급국으로 떠올랐다. 수입액은 1,540만 파운드(2,010만 달러)였다.

또한 태국산 수입도 2년 연속 증가하여, 2024년 수입량은 5,521톤으로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반면 포르투갈과 파푸아뉴기니산 제품은 판매 부진을 보였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산은 188톤으로 급감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UK: Import Of Canned Tuna (Preserved/Prepared)

Full Year in M/T, Value in Total GBP per Year, Divided Into Major Origins

	2022		2023		2024	
	M/T	Mln GBP	M/T	Mln GBP	M/T	Mln GBP
Ecuador	22,524	86.99	23,940	98.35	27,619	108.80
Mauritius	14,825	59.40	14,565	62.31	14,608	60.30
Seychelles	12,360	49.50	8,497	43.55	10,460	50.40
Ghana	9,845	40.82	9,219	40.84	10,440	43.10
Philippines	6,202	26.04	8,562	31.24	9,355	32.00
Thailand	1,381	7.02	2,940	14.32	5,521	25.60
Netherlands	7,181	26.92	5,042	19.38	4,599	19.70
China	47	0.40	80	0.50	4,341	15.40
Maldives	2,685	9.79	4,465	17.98	3,979	16.70
Indonesia	2,781	10.03	2,495	9.32	2,808	10.10
Spain	3,624	22.50	2,374	21.30	2,804	25.30
France	5,680	10.20	1,365	6.10	1,714	14.90
Portugal	8,850	8.87	2,042	3.40	1,111	5.10
Papua New Guinea	2,030	7.24	1,365	6.10	188	0.70
Others	2,845	4.28	3,206	10.01	4,065	3.70
<b>TOTAL</b>	<b>102,860</b>	<b>370.00</b>	<b>90,157</b>	<b>384.7</b>	<b>103,612</b>	<b>431.8</b>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1일자



## EU 가공업계, EU-태국 FTA서 참치 제외 요구 고수

### 태국 가공업계 개방 요구에 반발

유럽 참치 가공업계는 태국산 참치 통조림의 EU 시장 무관세 개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태국 가공업체들이 EU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이력 추적성, 노동 기준 등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계 최대 참치 생산국인 태국은 11월 중순 EU-태국 FTA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하며 자국산 참치 제품의 무관세 진입을 촉구했다. 태국 업계는 자국 제품이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규범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럽 수산물 가공업계 대표단체 안파코(Anfac)의 로베르토 알론소 사무총장은 태국산 참

치가 “여전히 EU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지적하며 무관세 개방 불가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는 태국 업체가 사용하는 참치 원어의 절반 이상이 EU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항만 규제·이력추적성·물류·관리 조치도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EU-태국 FTA 협상은 9~10월 브뤼셀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음 협상은 향후 수개월 내 재개될 전망이다. 유럽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Europeche도 참치 제품을 FTA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기존 원산지 규정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4일자

## 필리핀, 튀르키예 참치 수출 기회 모색

### 튀르키예, 최근 수년간 참치 가공품 수입 증가 추세

필리핀은 튀르키예 협력조정기구(TIKA)가 밝힌 바에 따라, 농업 당국 간 무역 논의가 진전되면서 튀르키예 시장에 참치 제품과 할랄 인증 수산물을 수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 농식품 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히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TIKA는 그동안 농업 교육, 투자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양식 촉진 등에서 필리핀과 협력해 왔다. 특히 튀르키예 시장 접근의 핵심 요건인 국제 할랄 기준 충족을 위해 필리핀산 수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국비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2024년 필리핀의 대튀르키예 식품 수출액은 4,220만 달러로, 코코넛 오일과 카라기난이 실적을 견인했다. 양측 협의가 진전되면서 2026년까지 참치가 핵심 성장 품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필리핀은 증가하는 튀르키예 식품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협력이 수산업 분야의 장기 발전과 무역 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튀르키예의 참치 가공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9일자

## EU, 소비자 보호 체제 개편

### 기업의 과장된 친환경 주장 검증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향후 5년 동안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소비자 의제’를 채택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과장된 친환경 주장을 믿고 선택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즉 그린워싱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놓여 있다. EC는 이미 2024년 2월부터 EU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참치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잘 알려진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로고와 같은 지속가능성 표기가 앞으로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의제는 EU 의회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일부 지속가능성 및 실사 관련 법률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직후 발표되어 더 큰 관심을 모은다. EC는 유럽 소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생활비 상승, 전자상거래 확대, 온라인 시장관행 변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해외 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을 막는 기능도 한다고 강조했다.

‘2030 소비자 의제’는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둔다. 첫째, 소비자가 단일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제거한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공정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EU 규정을 실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넷째, 온라인상의 불공정 상행위와 안전하지 않은 제품 판매를 단속해 소비자와 기업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소비의 관점에서 EC는 회원국들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는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반납 제도 개선, 중고시장 활성화, 순환경제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유럽의 순환경제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에 도입된 그린워싱 방지 지침은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적·사회적 속성에 대해 오인하도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참치 산업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사용돼 온 ‘돌고래 안전’ 로고가 대표적 환경 주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증 기관이 해당 로고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더 엄격한 검증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0일자

## 에콰도르 참치 수출, 20억 달러 달성 전망

### 2024년 대비 17% 증가

에콰도르의 참치 수출 실적이 올해 말까지 2024년 대비 17% 증가한 2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획량 호조 및 EU 시장 수출에서의 경쟁 우위 등의 요인이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다.

안드레스 쿠카 에콰도르 참치산업협회(이하, CEIPA) 회장은 최근 2년간 동부태평양의 막대한 참치 어획량이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에콰도르는 2024년에 이미 17억 달러의 참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에콰도르 참치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 1~4월 수출액은 5억 5,362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하였다. 수출 품목은 참치 통조림, 로인, 냉동 스테이크 등 전 제품군을 아우른다.

쿠카 회장은 수출 성장 및 긍정적 전망의 첫 번째 핵심 요인으로 동부태평양의 막대한 어획량을 지적하였다. 2024년 동부태평양 조업 선단의 어획량은 총 96만 8,923톤이다. 특히 에콰도르 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51%나 급증한 35만 490톤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에콰도르의 연간 수출량은 통상 35만~50만 톤 수준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10만~12만 5,000톤이나 증가하였다. 에콰도르 통조림 가공업체들은 자국 선단의 어획물뿐만 아니라 만타항에 양륙되는 파나마 및 엘살바도르 선단의 어획물까지 가공하면서 글로벌 수출 물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쿠카 회장은 수출 증가의 두 번째 핵심 요인으로, 아시아 기업들이 EU 수출 시 부담해야 하는 물류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회장은 “가격

우위 및 안정적인 공급망 덕분에 에콰도르가 세계 참치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새로운 시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에콰도르는 EU의 주요 참치 통조림 수출국이자, 중국에 이은 2위의 자숙 로인 공급국이다. 에콰도르는 2024년 EU에 통조림 12만 1,495톤, 로인 4만 940톤을 수출했다. 또한 에콰도르 가공업체의 2024년 원어 처리량은 약 7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태국의 처리량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지난 10월에는 에콰도르 기업 엔반수르가 자사 브랜드 '투니스' 통조림 6,600상자(약 55톤)를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성공과 신규 시장 확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참치 업계의 시선은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에콰도르산 참치는 15%의 상호 관세와 일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쿠카 회장은 주요 목표가 ‘무관세’ 달성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장은 “CEIPA는 대외무역부 및 차관과 협력하여 공동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상호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참치 산업 시설의 70%는 만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공장들은 과야킬과 포소르하에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9일자

# ICCAT 연례회의서 대서양 서부 가다랑어 MP 채택

## 황다랑어 TAC 배분 불발 外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막을 내렸다. 회의에서는 서부 가다랑어에 대한 첫 관리절차(MP) 도입, 상어류 보호 강화, 항만국조치 개정, 그리고 BBNJ 이행 준비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 등 제도적 진전이 확인되었다.

반면 황다랑어 TAC 배분 협상은 끝내 합의에 실패해 주요 당사국 간 조정의 어려움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ICCAT은 이번 회의에서 12개 권고와 3개 결의안을 확정했으며, 페나스 전 의장의 임기 종료 후 모로코의 자키아 드리우이치를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해 향후 4년간 논의의 방향과 의제 설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서부 가다랑어 MP의 공식 도입이다. 2026~2028년 TAC는 연 3만 844톤으로 설정되었고, 브라질이 제출한 MP 옵션이 과학적·관리적 토대가 되었다.

퓨 자선신탁은 해당 결정을 “대서양 열대참치류 자원관리의 새로운 장”이라 평가하며 향후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다른 주요 어종으로 MP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반면 황다랑어는 최근 남획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쿼터 배분을 둘러싼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프랑스 선망어업 단체 오르통젤(Orthongel)은

“유럽 선단은 2017~2021년 동안 약 50% 감축을 감수했음에도 과학적 권고가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참다랑어 TAC는 동·서부 모두 상향되었다. 2026~2028년 서부 TAC는 13% 증가한 3,081톤, 동부는 19% 증가한 4만 8,403톤으로 설정되었으나, 퓨는 “증가폭이 과학 권고치를 20% 이상 웃돈다”라고 비판했다.

상어류 보호에서는 대서양 남부 청상아리 사망 한도를 1,000톤으로 묶고, 백상아리·돌묵상어의 보유·전재·양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혼획 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제도적 대응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어획 모니터링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르통젤은 전자 어획증명(E-CDT), 오픈서버 커버리지,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핵심 관리 장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5일 FAD 금어기가 아프리카 가공공장과 유럽 선망선단의 고용·비용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로 관리 절차와 보전 조치가 단계적으로 재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검토 방향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5일자



## ISSF, 전재·혼획·FAD 규정 등 강화

### RFMO 등록 선박만 전재 허용 외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은 과학 기반의 어업 관행이 현장에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4개 보존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해상 전재 감독, 혼획 저감, FAD 관리에 관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ISSF 이사회 의장은 참여 기업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참치 어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규칙 중 'RFMO 참여'와 '오퍼서 승선하 해상 전재'는 전재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연계되어 적용된다. 조업선과 전재선 모두 관련 RFMO 회원국 국적이어야 한다.

또한 '상어·바다거북·바닷새 혼획 저감 모범 관행

이행 선박과의 거레' 규정에 따라 기업은 모범 관행을 준수하는 연승선의 참치만 구매할 수 있다. 주요 기준에는 원형 낚싯바늘 사용, 상어줄 금지, 통미끼 사용이 포함되며, 남반구 연승선에는 바닷새 혼획 저감을 위해 아릿줄에 무게추 달기, 토리 라인 사용, 야간 투광 중 두 가지 이상 또는 낚싯바늘 보호장치 사용이 요구된다.

아울러 개정된 '선박 기반 FAD 관리 정책'은 고정식과 부유식 모두에 적용하고, 선박의 규정 준수를 위한 지침을 강화하여 모범 관행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4일자

## 베트남 참치 수출, 미국 부진 속 구조 재편 가속 냉동·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美 의존도 여전히 높아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에 따르면 올해 1~10월 베트남의 참치 수출액은 미국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7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높은 재고와 경쟁국 대비 불리한 관세 여건으로 8% 감소했으나, 여전히 최대 시장으로 2억 9,400만 달러를 유지했다. 반면 EU 수출은 4% 증가한 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집트는 128% 급증한 2,100만 달러로 신흥 성장시장으로

부상했다.

VASEP는 불안정한 원재료 공급과 주요 시장의 생산 이력추적성 강화가 향후 수출 확대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년 반등 이후 베트남 참치 산업은 시장 다변화와 제품 전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용량 가공품에서 냉동·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6일자

## 태국 아시아향 참치 통조림 수출 감소

☐ 프리미엄 수요 유지...사우디, UAE 시장 감소

태국의 올해 1~3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은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사우디와 UAE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량은 12만 4,505톤으로 지난해보다 8% 감소했으며,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4,480달러였다.

태국 전체 참치 통조림 수출량 40만 2,078톤 중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일본은 여전히 태국의 핵심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일본향 수출량은 2만 5,118톤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5,245달러로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았다. 이로써 일본 시장의 프리미엄형 통조림 수요가 탄탄함을 보여준다.

반면, 중동 시장은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 사우디와 UAE로의 수출량은 각각 4,514톤, 3,785톤 감소

했으며, 두 시장의 평균 단가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이들 국가는 해바라기유를 사용한 가다랑어 청크 앤 플레이크(chunks and flakes) 제품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기타 시장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열향 수출은 34% 감소하여 1만 4,270톤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향 수출은 8,129톤으로 27% 증가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평균 가격은 톤당 4,360달러였다. 또한 요르단·레바논·쿠웨이트 및 터키 등 일부 시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터키는 톤당 3,559달러로 주요 시장 중 단가가 가장 낮았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7일자

### Demand For Thai Tuna In Asia Fell

Thai canned tuna exports to Asia

Divided Into Major Destinations In M/T, CFR Per 1 M/T, Q3 (Cumulative)

	2023		2024		2025		Diff. %	
	M/T	FOB	M/T	FOB	M/T	FOB	M/T	FOB
Japan	26,672	\$5,308	25,244	\$5,570	25,118	\$5,245	0%	-6%
Saudi Arabia	23,774	\$4,273	26,349	\$4,412	21,835	\$4,143	-17%	-6%
United Arab Emirates	14,667	\$4,230	23,007	\$4,587	19,222	\$4,268	-16%	-7%
Israel	9,899	\$4,405	21,526	\$4,448	14,270	\$4,375	-34%	-2%
Russian Federation	5,136	\$4,202	6,421	\$4,362	8,139	\$4,360	27%	0%
Jordan	2,585	\$4,154	2,976	\$4,152	4,325	\$4,069	45%	-2%
Lebanon	2,073	\$4,166	3,675	\$4,459	3,722	\$4,426	1%	-1%
Yemen	3,639	\$4,289	4,882	\$4,435	3,409	\$4,293	-30%	-3%
Kuwait	2,596	\$4,576	2,648	\$4,611	3,245	\$4,521	23%	-2%
Turkey	896	\$3,824	1,767	\$3,677	3,150	\$3,559	78%	-3%
Others	13,805	\$4,403	17,173	\$4,538	18,071	\$4,485	5%	-1%
<b>Grand Total</b>	<b>105,741</b>	<b>\$4,553</b>	<b>135,667</b>	<b>\$4,667</b>	<b>124,505</b>	<b>\$4,480</b>	<b>-8%</b>	<b>-4%</b>

Source: Thai Customs

Powered By Atuna Analyst



## ICCAT 참다랑어 TAC 증가, 축양업계 수익성 위기 태국 가공업계 개방 요구에 반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가 2026~2028년 대서양 동부 및 지중해 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을 기존 4만 564톤에서 4만 8,403톤으로 약 19% 확대하고, 서부 TAC도 13% 상향한 3,081.6톤으로 설정함에 따라, 일본 바이어와 지중해 축양업계가 생산·수급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 놓였다.

세계 최대 횡감용 참다랑어 소비국인 일본은 쿼터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가 연말 도매가격과 시장 심리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시장은 2023년 가격 폭락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화 약세와 수요 둔화가 겹치며 시장의 흡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바이어들은 “쿼터 확대는 예상됐지만 폭이 생각보다 크다”라며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중해 축양업계 역시 단순한 물량 확대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료·연료비 등 운영비가 크게 상승하고 엔저가 지속되면서 생산비와 판매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축양업체들은 어획된 참다랑어를 가두리로 이송하지 않고 자연산으로 즉시 판매하거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미국·중국 등으로 신선 제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중해 지역의 축양 참다랑어 생산량은 연간 약 5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몰타·스페인·

튀르키예·크로아티아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

100kg 이상 참다랑어는 5~7월 사이 어획된 후 3~6개월간 비대 과정을 거쳐 출하되며, 크로아티아는 60kg급 개체를 최대 2년 반까지 축양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 중 약 1만 톤은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신선 유통되며, 나머지 약 4만 톤은 가두리 인근 가공선을 통해 동결 처리되어 주로 일본으로 수출된다. 일본은 냉동 로인과 필렛을 FOB 조건으로 매입하는 독특한 구매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는 300kg 이상 참다랑어의 일본 기준 가격은 2022년 kg당 2,900엔에서 2023년 1,500엔으로 급락했다가 2024년 약 1,900엔으로 회복했다.

2025년 생산물 협상 가격은 약 2,300엔 수준이 거론되고 있으나, 엔저 지속 시 2026년 축양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일본 바이어들이 2026년 생산물의 가격과 물량을 확정하는 내년 4~5월까지 축양 계획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TAC 확대가 향후 글로벌 참다랑어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일자

## WCPO 10월 전재량, 전월 대비 11% 증가

### 대부분 PNG서 전재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수역에서 10월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PNA 회원국 항만에서 운반선으로 전재된 참치 물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 활동의 대부분은 파푸아뉴기니(PNG) 주요 항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0월 한 달간 PNA에서 전재된 참치는 총 7만 3,700톤으로, 9월 대비 11% 증가했다. 운반선 전재 작업 보고 건수 역시 99회로, 전월의 91회 대비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선박의 전재 물량은 데이터 발표 시점 기준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월별 평균 냉동 참치 원어 전재량은 약 5만 5,000~6만 5,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재 활동은 PNG 내 마당(Madang), 라바울(Rabaul), 라에(Lae) 등 주요 항만에서 집중되었다. PNG 항만에서 처리된 전재 물량은 4만 2,746톤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선망선 조업이 PNG EEZ 및 인접 수역에 집중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키리바시에서는 전체의 16%인 1만 1,792톤이 처리되었으며, 마셜제도는 9,581톤, 미크로네시아는 7,370톤, 솔로몬제도는 1,474톤의 전재 실적을 기록했다. 10월 기준 나우루와 투발루에서는 전재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8일자

## WCPFC서 날개다랑어 MP·모니터링 강화 등 주목

### NGO 등 요구 사항 정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2차 연례 회의가 12월 1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5일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상 옵서버 승선율,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관리절차(MP), 전자 모니터링, 해상 전재 규제 강화가 NGO와 환경단체들이 주목하는 핵심 의제로 꼽힌다.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로고를 관리하는 NGO 단체인 EII는 고래류 식별 가이드 개발, 연승선 옵서버 100% 승선, 선망어업의 고래류 영향 조사를 요구했다.

ISSF는 가다랑어 MP 지속,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잠정 MP 도입, 연승선 옵서버 커버리지 20% 상향

을 요구하며, FAD 등록 명부 개발 일정, FAD 표시 제도, 부표 활성화·비활성화 규칙 마련도 촉구했다.

퓨 재단과 해양재단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및 기타 참치류 MP 채택, 항만국 조치 개선, 독립적 모니터링 강화, 해상 전재 보고 개선을 공동 요구했다. 글로벌참치연합(GTA)은 참치 어업 100% 옵서버 커버리지, 혼획·FAD 관리, 해상 전재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글로벌피싱위치(GFW)는 AIS 의무화와 선박 실소유주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6일자



## 태평양 도서국, WCPFC 날개다랑어 어획전략에 총력

### MSC 인증 유지 위해 날개다랑어 MP 필요

12월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가 개막하며, 태평양 도서국들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관리 절차(MP) 확정을 위해 핵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MSC는 2026년부터 날개다랑어 어업 인증 요건으로 MP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며, 퓨(Pew) 재단은 올해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태평양 도서국의 생계·정부 수입에 큰 재정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CPFC 사무총장 레아 모스-크리스천은 작년 승인 실패 이후 날개다랑어 TAC가 2년째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 1년간 회원국 간 조율이 이어진 만큼 올해 MP 채택 가능성에 낙관적 입장을 밝

혔다.

태평양도서국포럼수산청(FFA)은 적도 이남 연간 어획량 9,000톤과 투발루·토켈라우 667톤을 포함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승인 시 2027~2029년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발효된다. TAC 세부 내용은 회원국 협상에 달려 있다.

필리핀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필리핀의 WCPFC 대상 참치 어획량은 20만 1,000톤 이상이며, 날개다랑어는 833톤으로 1% 미만이다. 주요 어종은 가다랑어(11만 5,355톤)와 황다랑어(7만 9,865톤)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일자

## 美 참치 수입업체, “美 정부 관세 불법적” 소송 제기

### 무역적자 근거로 한 IEEPA 발동 위헌성 주장

미국 참치·수산물 수입업체 넷투노 USA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참치 등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관세의 신뢰성은 현재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다.

넷투노는 11월 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USTR 대표, 상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포고령을 통해 관세율과 적용 범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

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를 겨냥한 상호 관세 조치 이후 하역 비용이 급등했고, 관세 변동성으로 인해 주문 확정과 제품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넷투노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국가비상사태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추가 징수 중단, 이미 부과된 관세 환급을 요구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6일자

## 페루산 대왕오징어 45주차 中 가격 하락세

### 아르헨 일렉소오징어 전주 수준 유지

10월 28~3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국제어업박람회(CFSE) 기간 이후, 페루산 대형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 흙볼트오징어) 대형 제품의 중국 시장 가격이 많은 재고와 무역업체의 신중한 태도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냉동수산물 무역 플랫폼 ‘화차이(Huacai)’에 따르면, 2025년 45주차(11월 3~9일)에 페루산 대왕오징어 1~2kg의 가격은 전주 대비 변동이 없었으나, 2~4kg의 가격은 전주 대비 톤당 100위안 하락하였다. 아르헨티나산 일렉소오징어 300~500g의 45주차 가격은 전주 대비 변동이 없었다.

페루 수출업체들은 올해 페루의 오징어 어획량이 60만 톤이라는 매우 많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재고 수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페루의 주요 수출업체인 페스케라 엑살마르(Pesquera Exalmar)의 라파엘 로마노 영업부장은 “중국으로 수출된 재고가 소진된다면 괜찮겠지만, 이 재고가 조기에 소진되지 않으면 아마도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장의 움직임은 이례적으로 커진 오징어 크기로 인해 복잡해졌다. 연초 평균 2~2.5kg이었던 오징어의 크기는 10월까지 평균 6kg 이상, 최대 10~12kg 수준을 기록하였다.

현재 페루 정부가 오징어의 자원 상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금어기를 시행하면서, 오징어 조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하여 12월 단기 어기의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바이어가 칭다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급업체들이 중국 내의 많은 재고로 인하여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2~4kg 페루산 오징어의 가격이 박람회 첫날 가격보다 하락하였다.

중국 저장성 저우산 국제농산물무역센터(이하, ZZIATC)는 중국 연휴(10월 1~7일) 이후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약화되었으며, 시장 약세 지속과 함께 재고는 점차 소진되고 있어 무역업체들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ZZIATC는 다음 대왕오징어 가격 상승은 2026년 2월 17일 시작되는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무역업체와 가공업체가 재고 비축을 시작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 일렉소오징어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제도 EEZ 내 조업 시즌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중국 원양어선단은 7월 1일부터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

아르헨티나의 1~9월 일렉소오징어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48% 증가한 약 19만 톤이며, 평균 수출 가격은 11.5% 상승한 톤당 2,835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중국의 수입량은 12만 2,000톤이며, 평균 가격은 톤당 2,713달러였다.

ZZIATC는 중국 선단이 아르헨티나 EEZ 외곽에서의 일렉소오징어 조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12월에 남서대서양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6일자



## 日, 해외 오징어 동향 및 어업 현황 등 논의

### 살오징어 어업 시 수중등 점멸 효율성 연구 外

일본 전국 오징어가공업 협동조합은 11월17일 조합원 세미나를 열어 해외 오징어 자원 동향, 일본 채낚기 어선의 조업 상황, 자원 개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와 오징어채낚기어업협회 관계자들이 최근 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짚었다.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FRA) 니시자와 주임연구원은 해외 오징어·원양 오징어 자원과 어획 동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2023년 말~2024년 2월 발생한 엘니뇨로 2024년 페루 국내 대왕오징어 누적 어획량이 평년의 1/3 수준인 19만 톤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1~4월 누계는 18만 8,000톤으로 회복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는 7~8년 주기의 자원 변동성이 나타나며, 2022~2023년은 증가 국면에 해당했으나 과거 풍어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5년 아르헨티나 EEZ 내 어획량은 2024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오징어채낚기어업협회 나카츠 타츠야 회장은 일본 중형 채낚기 어선의 조업 현황을 설명했다. 소형선은 조업 중지 명령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형선 4척은 당초부터 살오징어를 목표로 7월 하순 조업을 시작했고, 9월 중순부터는 무라사키오징어 조업을 마친 선박도 합류했다.

본격 조업이 9월에 시작된 탓에 누적 어획량은 많지 않으나, 어획 추세 자체는 전년보다 빠른 것으로 전했다. 어획된 개체의 소형 비중은 높았고 단가는 kg당 1,000엔 초반대로 최근 2년보다 낮았다. 협회

는 무라사키오징어 수요 확대와 조업 가능 선박의 지속 투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RA 개발조사센터 가토 요시키 그룹장은 쫄치·무라사키오징어 겸업 조사, 동해퇴 두점박이 살오징어 조사, 수중등 활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겸업 조사는 기존 쫄치 어선을 오징어 채낚기용으로 개조해 북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하루 평균 약1.6톤의 동결 제품을 생산해 전업선과 동등한 어획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어획물은 네무로항에서 시범 판매되었으며, 축의 가격(첫 어획물에 높은 가격을 주는 일본 관행) 영향이 있었음에도 전업선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가격을 받았고 중개인들로부터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비 개조에는 약 1억 8,000만 엔이 필요하지만, 수년간 조업하면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토 그룹장은 또한 중형 채낚기 어선이 얇은 수심에서 살오징어를 효율적으로 어획하기 위한 수중 집어등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수중등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연구진의 실험에서는 점멸 방식이 기존의 소등 대비 1.0~2.5배(평균 1.7배) 높은 어획량을 기록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점멸광이 살오징어를 해저에서 떠오르게 해 미끼 접촉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지속 점등은 오히려 어획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점멸 방식의 효율성이 확인되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미나토신문, 2025년 11월 20일자

## 페루산 오징어 공급 쇼크

### 재고 증가, 수요 하락 등 원인

페루산 대왕오징어의 중국 가격이 46주 차(11월 11~16일)에 급락했다. 재고 증가와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화차이(Huacai Zhaoyu)에 따르면 2~4kg 제품은 톤당 1,750위안, 1~2kg은 1,800위안, 500g~1kg은 1,000위안 하락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산 일렉스 오징어 가격은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업체는 페루산 생산량 급증, 특히 대형 사이즈 증가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지목했다. 칭다오 박람회 기간 중 페루 업체들이 귀국 전 주문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 전략을 사용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페루산은 품질과 물량이 풍부해 중국의 최대 공급국으로 꼽힌다.

저장 저우산 국제농산물무역센터(ZZIATC)는 현재 중국 도매 오징어 시장이 재고 과다·수요 부진의 조정 단계라고 설명했다. 남동태평양산 오징어 가격은 계속 하락하지만, 남서대서양 어장은 금어기여서 가격이 안정적이다. 중국 원양선단은 남서대서양 금어기(7월 1일 시작) 이후 12월 조업 재개를 앞두고 어장 이동 중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3일자

## 日 살오징어류 1~9월 어획량 47% 증가

### 2021년 이후 첫 증가세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JF 전어련)에 따르면, 2025년 1~9월 일본 살오징어 어획량은 1만 4,324톤으로 지난해보다 47% 증가했다. 신선 오징어는 1만 3,575톤(47%↑), 냉동은 749톤(58%↑)이었다. 다만 이시카와현의 8~9월 신선 어획량이 미집계되어 단순 비교에는 제약이 있다.

9월 한 달 어획량(이시카와현 제외)은 6,139톤으로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가 전년 대비 5.7배 증가한 1,337톤, 동해 지역은 63% 감소한 73톤, 규슈는 22% 증가한 55톤을 기록했다. 냉동 어획량은 499톤으로 전년 대비 11.3배 급증했다.

현재 일본의 신선·냉동 오징어 어업은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인망은 하치노헤·산리쿠 연안, 냉동선은 하치노헤·이와테현 쿠지·야마다 등지에서 조업 중이다.

일본의 살오징어 어획은 장기 감소 추세이다. 1987~2015년 매년 10만 톤 이상을 기록했고, 1990년대에는 두 차례 30만 톤을 넘겼으나, 2016년 6만 4,000톤 이후 급감해 2019년에는 3만 3,000톤까지 줄었다. 2020년 잠시 회복됐으나 2021~2024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2024년 전체 어획량은 1만 5,263톤에 그쳤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1월 17일자

## 페루산 오징어 日 가격 조정 중...어획량 회복 외 전년도 가격 급등 이후 하락 전망

일본 가공업체가 널리 사용하는 페루산 대왕오징어의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 심각한 부진에서 벗어나 약 3배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도 고점에서 조정되는 흐름이며, 일본 가공업체가 겪어온 원료 확보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페루산 대왕오징어는 통상 연간 40만~50만 톤이 어획되지만, 무역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어획량은 20만 톤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엘니뇨 영향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올해도 1~4월간의 어획은 부진했으나 5월부터 어획량이 급증해 6월 말에는 약 30만 톤의 쿼터를 모두 소진하였다.

이후 금어기 사이에서 쿼터가 여러 차례 추가되며 10월 누적 어획량은 약 57만 톤 전후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에 해당한다. 현재는 휴어기지만, 페루 정부는 10월 하순 쿼터를 약 60만 9,000톤까지 증량한다고 발표했으며 앞으로 조업이 재개되면 실적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어획량 회복으로 오징어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다. 올해 봄 일본 내 필렛 가격은 지난해 어획 감소 여파로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kg당 700엔에 달해 “처음 보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나, 5월 이후 어황 개선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11월 초 기준 필렛은 500엔대 중반, 지느러미(귀)는 봄철 650엔에서 500엔 전후 또는 일부 500엔 미만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격 조정의 배경에는 중국 시장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료 가격 급등으로 제품 판매가 둔화했고, 특히 5월 이후 가격 하락 시 체결돼 있던 고가 계약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발생해 매수세가 위축되었다. 11월에는 어기 후반 어획이 증가한 대형 사이즈 중심으로 중국 내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일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일본 내 시세는 2023년 동기 대비 여전히 약 50% 높은 수준이어서, 일본 업체들이 원하는 가격과는 격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상사 관계자는 비싼 재고를 보유한 중국도 추가 가격 하락을 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내년 초 시작되는 페루 신규 어기 결과에 따라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왕오징어 가격 급등으로 일본 가공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지만, 판매 감소를 겪어왔고, 일부에서는 이미 제품 가격 재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료 가격의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이러한 조정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신규 어기를 포함한 가격 동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1월 21일자

## NGO, “EU 수입 오징어 필수정보 누락” 주장 수산물 완전 라벨링 및 선박 국적 정보 의무화 요구

국제 NGO 오세아나(Oceana)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이 어종과 어획 장소 등 필수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세아나는 이러한 라벨링 부실이 불법어업과 강제 노동 문제에 연루된 수산물이 유통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슈퍼마켓, 생선 가게,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제품 19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EU 의회 구내식당의 판매 제품도 포함됐다. EU 법상 신선 및 냉동 수산물에는 어종과 어획 해역 표기가 의

무지만, 조리 식품과 식당 메뉴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확인됐다.

DNA 분석 결과, 정보가 누락된 제품의 90% 이상이 태평양이나 남서대서양 등 원양에서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산으로 표시된 제품의 71%는 실제 어획 해역이 다른 대양으로 밝혀졌다. 브뤼셀의 규정 준수율은 27%에 불과했고, 밀라노 역시 조리 식품 다수가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

오세아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완전한 라벨링 의무화와 선박 국적 공개 등 EU 차원의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7일자

## 페루 대왕오징어 어업, MSC 개선 프로그램 진입 MSC 인증 취득 최종 목표

페루의 대왕오징어 어업이 해양관리협의회(MSC)의 개선 프로그램(Fishery Improvement Program) 진입 승인을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승인은 기술 평가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국제 기준 충족 가능성 인정을 의미한다.

페루 대왕오징어협회(Capecal)의 회장은 이번 조치가 MSC 인증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Capecal은 21개 가공·수출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왕오징어 어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기관과 영세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MSC 체계는 자원 수준 유지, 생태계 영향 최소화, 장기적인 관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카레라 회장은 최근 페루가 해상 감독 강화, 과학적 조사 확대, 규제 정비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Capecal 부회장은 관리 규정 업데이트와 불법 조업 대응 강화, 공공·민간 연구 협력 확대가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6일자



## 러 업계, '26년도 A시즌 연육 가격 인상 고수

### 아시아 수요 강세·재고 소진에 고급은 인상, 저급은 동결

아시아 시장의 강력한 수요와 기존 재고의 사실상 완전 소진에 힘입어 2026년 A시즌 러시아산 명태 연육 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북부의 시장 소식통은 특히 고등급 연육의 가격 상승 압력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국제어업박람회(CFSE)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저등급 제품 가격은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일본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요 러시아 생산업체는 협상 여지가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연육의 주요 거래 루트는 여전히 부산항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한국·동남아 시장에서 등급과 상관없이 연육 수요가 “이례적으로 강하다”라고 말하며, 2025년 B시즌 생산 물량은 “사실상 품절 상태”이며 현재 운송 중인 물량조차 이미 예약이 끝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 냉동 창고에 저등급 연육이 쌓여 있다’라는 소문에 대해 그는 “태국·한국·동남아 바이어들이 대기 명단에 있을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국 바이어들은 내수용뿐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재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의 가공업체들은 첨가물이 없는 명태 기반 연육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명태 연육 수입량은 올해 8월까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러시아산 명태 시장에서 일본의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시아 가공업계는 높은 신선도, 안정적인 겔 강

도(젤의 탄력), 첨가물 없는 순도 높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산 명태 연육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품질 강점은 열대 어종에서는 확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 소식통은 “명태 연육은 선상에서 바로 가공되기 때문에 첨가물이 필요 없고, 온도·염도 등 체계적 공정 관리로 품질을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최근 열대·담수어 공급이 위축되며 명태 연육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육 주요 원료였던 실꼬리돔(itoyori) 등 소형 열대어의 경우 중국 내 수시장에서 원어 그대로 식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육용 공급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명태 연육 생산량이 2024년 7만 2,000톤에서 올해 8만 2,000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 전 세계 연육 총생산량이 약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러시아산 명태 연육의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이다. 그럼에도 고등급 비중은 2021~2023년 41~55%에서 올해는 60%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품질 개선이 두드러진다.

세 번째 소식통은 “러시아 업체들이 글로벌 연육 전문가들과 협력해 가공 전문성·품질관리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주요 생산업체는 일본 시장 기준을 충족하고 아시아 전역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기술자를 채용해 육상 가공 시설의 품질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6일자

## 대구·해덕 H&G, 中 박람회 기간 가격 상승으로 혼란 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 혼란 심해

냉동 러시아산 및 노르웨이산 H&G(머리·내장 제거) 대서양 대구와 해덕의 국제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10월 말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국제어업박람회(CFSE) 기간 동안 호가가 폭등하며 시장 혼란이 심화하였다. 언더커런트 뉴스는 45주차 대구·해덕 H&G 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28~30일 박람회 기간 3일 동안 톤당 1,000달러 급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 유럽 무역업체 관계자는 “시장 전체가 혼란스러우며, 서로 다른 가격이 난무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산 대구 H&G를 박람회 초기에 제시받은 가격보다 톤당 1,200달러 높은 가격에 다시 제안받았으며 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산 1~2.5kg 트롤 H&G 가격도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 판매업체 몇 곳은 45주차 기준보다 톤당 500달러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실제 체결 가격은 되레 500달러 낮게 형성되는 등 가격이 정형을 잃은 상태다.

미국 바이어들도 “대구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산 대구는 톤당 1,000달러, 노르웨이산은 800달러까지 호가 편차가 나며 정상적인 가격 책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 원료(H&G) 가격이 급등함에도 완제품 가격은 여전히 톤당 7,800~7,900달러 수준인 2분기 원가 구조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공업체들은 현 시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구매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중국 주요 바이어 역시 “H&G 가격 감각을 잃었

다”라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현 수준의 원료 가격은 가공업체들의 수익성이 전혀 맞지 않아 일부 중국 가공업체는 아예 H&G 구매 시장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 한 노르웨이 H&G 바이어는 “투기 목적으로 물량을 사재기한 노르웨이 무역업체들이 가격을 왜곡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용 물량이 거의 없고, 제시되는 호가의 대부분은 실제 중국 거래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판매업체 역시 “노르웨이 업체끼리 누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느냐 경쟁하는 듯하다”라며, 실제 해당 가격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지도 차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공급 통계 역시 시장 왜곡을 뒷받침하고 있다. 언더커런트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중국의 노르웨이산 냉동 대구 수입량은 전년 대비 45% 급감한 5,693톤에 그쳤다.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 시장의 1위 공급국이지만, 러시아산 수입도 가격 폭등 영향으로 16% 감소한 5만 2,573톤 수준에 머물렀다. 노르웨이는 미국에 2위 공급국 자리를 내주며 존재감이 크게 축소되었다.

해덕 시장 역시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산 냉동 해덕 H&G(800g 이상, 트롤 어획)의 45주차 가격은 전주 대비 톤당 약 200달러 상승한 7,400~7,500달러로 집계되었다. 대구 시장의 급등세가 해덕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북대서양 백색어종 시장이 급등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5일자

## EU 미승인 러 명태, 2030년에 100만 톤 예상

### EU 신규 허가 중단으로 미승인 러 명태 늘어나

러시아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명태 선단 및 가공 시설 재편이 계속 진행되면서, 2030년 경에는 EU의 수입 승인을 받지 못한 명태 생산량이 현재 생산량의 약 절반인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신규 건조되거나 개조된 러시아 선박 및 공장에 대해 수입 허가 발급을 중단하면서, 2024년에 EU 인증을 받지 못한 러시아산 명태 어획량은 원어 기준 45만 톤을 기록하였다.

러시아수산회사(RFC)의 사벨리 카르푸힌 회장이 '2025 저서어류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명태 선단은 총 74척이며, 어획량은 210만 톤이다. 이 중 65척은 EU 허가를 보유한 노후 선박이며, 9척은 신규 선박이다. 이 중 2척은 2022년 이전에 건조되어 허가증이 있지만, 그 이후 건조된 선박들은 모두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카르푸힌 회장은 2030년까지 러시아 선단이 총 54척(노후선 41척, 신조선 13척)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당 선단의 어획량 킬터는 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신규 선박 13척 중 11척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전체 어획량의 절반가량만이 EU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회장은 설명하였다.

카르푸힌 회장은 "EU의 흰살생선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이며, 그중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러시아산"이며 "원어 기준 100만 톤이 넘는 러시아산을

대체할 합리적인 공급원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무역 데이터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5년 1~9월 EU의 명태 필렛 수입량은 약 16만 9,000톤이며, 이 중 9만 9,000톤이 중국산 혹은 러시아산이다. 중국산 물량의 대부분이 러시아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산의 비중은 사실상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셈이다. 2024년 전체 수입량 기준으로는 21만 8,000톤 중 64%가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직접 수입되었다.

카르푸힌 회장은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 EU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부터 3~4년 후에는 50% 이상이 EU 허가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EU 당국이 노후선의 허가는 유지하면서, 연비가 좋은 신조선이나 환경 친화적인 신규 시설에 허가를 주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장은 "우리는 타협안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기존 허가를 신규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EU 측에 요구하였다. 이렇게 하면 전체 허가 건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RFC는 2025년 기준 41만 8,477톤의 명태 킬터를 보유하고 있다.

회장은 기존 시장인 EU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대안 시장을 찾아야 하며,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르푸힌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명태 필렛 생산량은 17% 증가하여 1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EU로의 필렛 공급량은 오히려 16% 감소하였다. 회장은 “러시아 내수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EU 수출량은 허용치보다도 적었다”라며, 내수 성장으로 인하여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시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포럼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내수 시장에 공급된 싱글프로즌(어획 후 1회 동결된 제품) 필렛의 양은 약 4만 5,000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약 17%를 차지하였다. 2023년 러시아 내수 공급이 1만 3,000톤(전체 공급의 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회장은 또한 러시아 가공 부문의 통합 추세 및 각종 투자를 통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회장은 내수 필렛 시장 성장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연육 생산 성장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RFC는 2025년 러시아 연육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8만 2,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6년에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1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산 연육의 주요 시장은 EU가 아닌 아시아 국가이다. 그 결과 러시아산 연육은 일본과 한국 시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0일자

## 美 정부 섯다운으로 2026년 美 저서어류 어업 위기 알래스카 명태 A시즌 조업 불확실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베링해와 알래스카만 저서어류 어업, 특히 알래스카 명태 A시즌 조업까지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이 11월 9일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섯다운 해제 기대감이 생겼지만, 상황이 쉽게 낙관되지는 않는다. 이미 미국 국립해양수산청(이하, NMFS) 과학자 상당수가 일시 해고되면서 11월 저서어류 계획팀 회의가 취소되는 등 행정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 회의는 최신 자원조사 분석과 TAC 설정 전 의견수렴을 담당하는 핵심 절차로, 회의 중단은 곧 올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NMFS는 전년도 설정치를 사용해 2026년 어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섯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명태 A시즌 조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설령 조기 업무 재개가 이뤄지더라도 최신 자원 평가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12월 NPFMC(North Pacific Fishery Management Council)가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TAC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과학성·투명성·일관성이 훼손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섯다운이 어업관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0일자

## 美·中·러 명태 필렛 가격, 유럽 공급난으로 상승

### 美 TAC 및 러 어획량 예상치 등 가격 상승 요인 다수

2026년 상반기까지의 소매 계약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유럽 명태 가공업체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산 필렛 블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1월 14일 발표된 언더커런트의 11월 가격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저서어류 포럼 이후, 싱글프로즌 및 더블프로즌 필렛 블록의 가격은 추가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5월 러시아 거대 수산기업 노레보 홀딩스의 유럽 시장 퇴출, 러시아 내수 수요 증가, 러시아 신조선 및 개조 선박에 대한 EU 수출 허가 미발급 등이 러시아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앞친 데탕친 격으로 미국 기업들은 미 농무부(USDA) 입찰에 높은 가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알래스카 연안 조업 선단은 B시즌에 3만 2,000톤, A시즌에 1만 1,900톤의 쿼터를 미소진으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서양 대구의 기록적인 가격 상승 및 공급 감소와 맞물려,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계약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EU 냉동어류 가공업체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높은 가격은 비교적 소량 거래에 해당하지만, 2026년 A시즌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 유럽 업체 관계자는 “물량을 제때 확보 못한 회사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미국의 다수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가격 하락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년에는 모든 어종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언더커런트 뉴스가 11월 평가한 미국산 싱글 프로즌 명태 PBO(가시 제거) 필렛의 유럽 냉동창고 출고 가격은 10월 대비 톤당 100달러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산 PBO 필렛의 경우, 저서어류 포럼 기간 중 소량의 거래가 높은 가격에 체결된 것이 확인되면서 유럽 냉동창고 출고 기준 평가액이 톤당 50달러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 러시아산 신규 물량은 전량 매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EU의 자율관세할당(ATQ) 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13.7%의 관세가 추가되면서, 관세를 포함한 러시아산 PBO 가격은 미국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현재 시장에 유입되는 물량은 연초에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것들이며, 11월 가격 평가는 주요 B시즌 거래 외의 최신 시세를 반영한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싱글 프로즌 판매자들은 2026년 A시즌 가격에 대해 강세론을 펴고 있다.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호가는 현재 수준보다 톤당 200달러에서 많게는 400달러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2026년 명태 TAC 예상치 감소(13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10만 톤 감소 예상), 러시아의 2026년 명태 어획량 전년도 수준(206만 톤) 유지 예상, EU의 러시아 신조선 수입 허가 미발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내년에도 명태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8일자

## 러, 수산물 거래소 등록 제도 시행

10톤 이상 자발 등록 시작, 26년 3월부터 의무화 전환

러시아 정부는 11월 1일부터 10톤 이상 규모의 수산물 거래에 대해 거래소에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정부가 수산물을 가격 감시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수산물 가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정부령은 2025년 10월 17일에 공식 서명됐다.

정부령에 따르면, 장외(비거래소) 수산물 거래 정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거래소에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는 의무 제출로 전환된다. 등록 대상에는 명태, 대구, 해덕, 청어, 고등어 등 주요 상업성 어종과 분홍연어, 참연어, 홍연어 등 연어류가 포함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산물 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을 추적해 국내 시장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수산청도 이번 제도가 수산업 기업의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산청은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기존에 기업들이 작성해 오던 자료와 동일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방수산청은 러시아 어업이 매년 약 500만 톤의 수생생물자원을 어획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소 등록제는 전체 어획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Fishportal.ru, 2025년 11월 5일자

## 러 명태 H&G 46주 차 가격, 2008년 이후 최고치 향후 가격 하락폭 적을 것으로 전망

러시아산 냉동 명태 H&G 가격이 통상적인 계절적 하락 없이 46주 차(11월 10~16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와 미국산 B시즌 PBO(가시 제거) 펠렛 블록 재고가 소진되면서 중국 가공업체는 더블프로즌 펠렛 블록 중심으로 구매를 이어가고 있다.

25cm 이상 규격의 러시아산 명태 H&G CFR 중국 가격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보다 높은 사례는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연말 오호츠크해 어획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올해는 하락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6년 A시즌 협상에서 러시아 판매자는 톤당 1,500달러를, 중국 구매자는 1,400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격은 양측 요구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미국산 싱글프로즌 PBO 판매자들은 10월 대비 톤당 200~400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강경한 협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2일자

## 러, 어선 신조 보조금 지급 고수

### 2030년 노후 어선 금지 계획에 대한 우려 커져

2030년부터 노후 어선 사용을 금지하려는 러시아 정부 계획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어선 신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안톤 알리카노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시아 하원에서 현재 건조 중인 거의 모든 신조 어선이 국가 지원을 받아 건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투자 할당량 메커니즘의 1단계에서 65척의 신규 트롤선과 42척의 계잡이 선박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46척의 신규 선박이 현재까지 건조되었다고 밝혔다. 11월 12일자 부처 발표에 따르면, 2차 사업에서는 34건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

장관은 이전에 해외에서 수입되었던 수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7개의 연구 프로젝트에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수산청 역시 AI 기반 솔루션을 포함하여 해당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안드레이 야코블레프 러시아 수산청 차장은 현재 AI 기반의 새로운 예측 방법이 오호츠크해에서 시험 중이며, 이러한 혁신 기술이 기존의 예측 절차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차장은 러시아 수산청이 규제 절차에도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어선을 현대화하기 위해 6년 전 도입된 투자쿼터 제도 하에, 러시아 기업들은 의무에 따라 신규 선박 건조를 계속하고 있다. 신조된 선박은 베링해, 오호츠크해, 동해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 업계는 2030년 1월 1일부터 40년이 넘는 모든 선박의 러시아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초안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러시아 어업계가 보유한 어선은 현재 약 830척이며, 이 중 65%는 선령 30년 이상, 13%는 40년 이상이다. 전러시아어업협회(이하, VARPE)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많은 어업계 종사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 계획을 시행하려면 향후 5년 동안 500척 이상의 어선 신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VARPE는 이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과 업계 단체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4일자



## 美 명태 업계, 한국 시장 공략 강화

### 러 경쟁 심화 속 한국어 웹사이트(www.usapollock.co.kr) 개설

미국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 협회(GAPP)는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공식 웹사이트(www.usapollock.co.kr)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 GAPP의 이번 조치는 미국산 알래스카 명태가 러시아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손스 마켓 메이커스(Sohn's Market Makers)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알래스카 명태의 시장 점유율은 약 66%로 러시아산(약 35%)을 크게 앞섰으나, 올해 1~9월에는 알래스카산 50.36%, 러시아산 49.64%로 양측 점유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세부 품목 중 냉동 명태알(roe)과 필렛 부문에서는 러시아산이 시장을 주도했으며, 냉동 명태

원어 부문에서도 러시아산이 다수 점유율을 차지해 알래스카산은 2위를 기록했다.

GAPP는 서울 소재 손스 마켓 메이커스와 협력해 콘텐츠 현지화 작업과 한국어 판매 자료 제작을 진행했다. 이번 웹사이트 개설은 크레이그 모리스 GAPP CEO가 서울을 방문해 소매·푸드서비스·제조업 관계자를 만나고, 공동 마케팅 프로젝트를 소개한 시점과 맞물린다. 모리스 CEO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GAPP는 올해 초 주요 아시아 식품 박람회를 앞두고 한국어뿐 아니라 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판매 자료도 제작한 바 있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11월 14일자

## 美 위원회, 알래스카만 명태 TAC 26% 삭감 권고

### 베링해 명태 TAC 137만 5,000톤 권고

미국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MC) 산하 과학통계위원회(SSC)는 2026년 알래스카만 명태 TAC를 전년 대비 26% 줄인 13만 9,498톤으로 권고했다. 이는 올해 승인된 18만 6,245톤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며, 11월 8일 기준 전체 쿼터의 28%가 미소진 상태로 남아있다.

SSC는 베링해 명태 TAC를 137만 5,000톤으로 사실상 동결했으며, 알류산 열도 명태 TAC도 1만 9,000톤으로 유지했다. 베링해 태평양 대구

쿼터는 8% 감소한 12만 3,077톤, 알류산 열도 대구는 6% 증가한 8,433톤이 제시됐다.

연방정부 섯다운으로 NMFS 과학자들이 일시 해고되면서 신규 자원평가가 완료되지 못해 이번 권고안은 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최종 TAC는 다음 달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NPFMC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1일자

## 러시아산 H&G 명태 가격, 급등 후 하락세 가공 제한과 공급 증가 전망이 단기 가격 하락 증폭

최근 러시아산 머리·내장 제거(H&G) 명태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48주차(11월 24~30일) 러시아산 25cm 이상 H&G 명태 가격은 전주 대비 톤당 10달러 상승했으나, 하락세 전 고점이었던 47주차 말 거래가격보다 톤당 50달러가량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매년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일반적이나, 현재 수준은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범위”라고 분석했다.

가격 조정의 핵심 배경으로는 중국 시장 상황이 지목된다. 2026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내 더블프로즌(double-frozen) 필렛 가공 능력이 제한되고 있어 일부 바이어들이 구매를 보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한 1월부터 오호츠크해 조업 물량이 본격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증가 전망이 강화된 점도 단기 매수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판매업체 관계자는 “일부 공장은 1월 어획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구매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며, 가격 급등 이후 거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든 현 시장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급등을 “일시적인 재고 부족에 따른 비정상적 매입 수요가 만든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대부분 업체는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관망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참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12월과 2026년 1

월 가격 하락 폭이다. 한 관계자는 “12월에는 통상 가격이 하락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2026년 1분기 대형 계약은 톤당 1,400~1,500달러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렛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경우, 중국 CFR 기준 H&G 가격이 톤당 1,5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1분기에 이 수준을 기록한 해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었다.

향후 가격 흐름은 더블프로즌 필렛 시장과 EU 수요가 좌우할 전망이다. 업계는 EU의 안정적 필렛 수요가 유지될 경우 3월 이후 H&G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관계자는 “H&G 가격은 춘절 이후 결정될 필렛 가격 흐름에 크게 의존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미국산 싱글프로즌(single-frozen) 명태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들은 강제 기조를 예상하고 있다. 유럽 가공업체 상당수가 2026년 상반기 소매용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러시아·미국산 필렛 블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6일자

## 中-러, 中 명태시장 개발 위해 협력

###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러시아명태어업협회(PCA)와 중국수산물가공마케팅협회(CAPPMA)가 중국 시장 내 명태 소비 확대와 제품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알렉세이 부글락 PCA 회장과 왕 슈에광 CAPPMA 부회장 겸 사무총장이 서명했으며, 중국 내수 시장에서 명태 소비를 촉진하고 고품질 생산 제품군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신제품 공동 개발,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명태를 ‘건강하고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 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 활동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 기술, 콜드체인 관리, 표준화 등 공급망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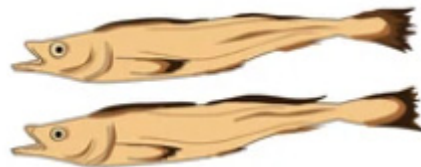
부글락 PC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 시장에서 명란 제품을 틈새시장으로 개척하며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중국에 ‘명태 판매대(pollock shelf)’를 구축하고 명태 제품의 건강·트렌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국 측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왕 슈에광 CAPPMA 사무총장 역시 “중국은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단순한 제품 품질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높은 표준,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산 명란이 “풍미, 영양, 중국 요리와의 높은 호환성 덕분에 시장 기회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러시아 수산물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PCA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 해외 수산물 수출의 58%를 차지한다. 다만 2025년 러시아의 대중국 명태 수출은 품목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올해 1~9월 러시아의 대중국 냉동 명태 수출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43만 5,000톤, 수출액은 5억 6,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명태 필렛 수출은 전년 대비 60% 급감한 7,000톤, 수출액 역시 50% 감소한 1,5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번 장기 협력 체결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러시아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중국이 안정적·고품질 수산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명태 제품군 확대와 가공·유통 협력 심화를 통해 중국 내 명태 소비 기반을 넓히는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11월 28일자





## 日 10월 말 콩치 어획량, 55% 증가

### 10월 말 누계 4만 5,000톤 이상...금액 25% 증가

일본 전국 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말 시점 일본의 전국 콩치 어획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55% 증가한 4만 5,560톤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25% 증가한 178억 8,828만 엔이다. 전국 평균 단가는 10kg당 3,926엔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9% 하락하였다. 최근 수년간의 어획량 부진 추세에서 호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홋카이도에 양륙된 양은 60% 증가한 3만 3,197톤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32% 증가한 130억 2,086만 엔이다. 혼슈에 양륙된 양은 43% 증가한 1만 2,363톤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0% 증가한 48억 6,742만 엔이다.

최근 수년간 해양환경의 변화나 여러 국가 간의 남

획으로 인한 콩치 자원 감소가 관측되었다. 2001~2016년 연간 30만~60만 톤 가량으로 추산되었던 총 어획량은 2021~2023년 들어 연간 10만 톤 전후로 급락하였다. 일본의 어획량도 2008~2009년에는 연간 30만 톤을 넘었으나, 2021년 이후 연간 1만 8,000~2만 6,000톤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서 공해 수역 중심으로 어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2024~2025년에 대만과 중국의 어선이 어기 도중에 조업을 정지하였다. 일본의 어획량은 2024년에 3만 9,000톤으로 회복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1월 6일자

## 러, 내년 콩치 TAC 권고량 전년 대비 1.2% 증가

### 사실상 동결 수준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최근 북방영토를 포함한 남북 쿠릴(일본명 치시마) 수역 등 자국 EEZ 내 내년도 콩치 권고 어획량을 발표하였다.

주요 어장인 남북 쿠릴 수역의 권고량 합계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6,693톤으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쿠릴 수역: 1만 5,695톤(1.2% 증가)

북쿠릴 수역: 998톤(0.1% 증가)

러시아 어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여름 무렵 쿠릴 열도 수역에서 콩치 조업을 시작하여 가을까지 진행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쿠릴 열도의 중부 또는 북부 수역에서 남서부 수역으로 어군을 쫓으며 이동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1월 12일자

## 언론, 日 콩치어업 10월 말 시점 상세 분석

### 어획량 회복에도 아쉬움 남아...대만산 관심 증가

2025년 어기 일본 국내 콩치 어획은 8월과 9월 전 반기에 집중되며 최근 10년간 보기 드물었던 큰 어체와 풍부한 지방을 지닌 물량이 대거 출하되었다. 이 시기의 어획은 선어 유통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고, 업계는 오랜만에 냉동 가공용 원료 확보에 기대감을 보였다. 어장도 일본 근해로 빠르게 접근하며 9월 2~4일에는 3일 연속 일일 어획량이 1,000톤을 넘어섰고, 가격도 kg당 200엔 아래로 떨어지는 등 원료 조달 여건은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냉동 원료 매입이 본격화되기 직전 24시간 금어기가 발동되었고, 일시적으로 48시간으로 강화되었다가 9월 말 종료되었다. 금어기 직후 가격은 즉시 kg당 300엔 수준으로 반등했으며, 다시 300엔 아래로 내려간 것은 10월 중순이 되어서였다. 이에 따라 업계가 기대했던 시점의 안정적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어기 이후 어획량 감소와 함께 냉동 재고 확보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진행되었다.

전국 콩치붕수망어업 협동조합이 11월 4일 발표한 10월 말 기준 초기 집계에 따르면, 총 어획량은 4만 5,560톤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다. 이미 전년도 최종 어획량인 3만 8,695톤을 넘어섰으며, 2022년 저점(1만 7,910톤)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증가분은 대부분 8월과 9월에 집중되었고, 10월 어획량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1월 1~10일 어획량은 3,052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어체 크기도 초반의 180~200g급에서 11월에는 120g급이 주류를 이루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어기 후반 소형 개체 비중 증가로 냉동 원료로서의 매력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원료를 제대로 확보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가격이 반등한 뒤 매입해 판매성이 불확실하다” 등 실망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획량 자체는 증가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진으로 완전히 소진된 일본 내 냉동 재고를 자체 어획만으로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만산 콩치가 대체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 선단은 9월 14일 어획 한도에 도달해 이후 조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나, 어획량이 급감하기 이전 단계에서 어체가 좋은 개체 위주로 냉동품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일본의 냉동 콩치 수입량은 2,613톤으로 최근 10년 중 최소치를 기록했고, 이 중 약 90%가 대만산이었다. 2025년 수입은 9월 누계 기준 459톤으로 전년 대비 늦게 진행되는 추세지만, 신규 물량이 유입되는 11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전년도 수입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1월 18일자



## 日 마루하니치로, 콩치 양식 상용화 실험 지속 “수년 내 사업화” 목표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는 알에서 부화한 콩치를 식용 크기까지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양식 규모를 확대해 생식(生食)용으로 도 제공 가능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루하니치로는 2023년 10월, 가고시마현의 회사인 양식기술개발센터에서 콩치 시험 양식을 시작했다. 육상 수조에서 인공 부화한 치어를 사육한 결과, 약 6개월 만에 1마리당 100g 이상까지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근 자연산 콩치는 어획량 감소가 지속되며 공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어기 초반 어획량이 증가했지만, 과거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는 양식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연산 부족 시에도 출하가 가능해지고, 연중 신선한 콩

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20년 이상 인공 번식 콩치를 전시해 온 ‘후쿠시마 해양과학관(아쿠아마린 후쿠시마)’이 협력했다. 해양과학관은 콩치알 제공과 사육 기술 자문을 맡아 연구 진행을 지원했다.

콩치는 비늘이 잘 벗겨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 사육이 어려운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마루하니치로는 참치·방어 양식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적정 수온과 사료 조건 등을 세밀하게 조정하며 성장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마루하니치로는 양식장 확대와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해 “수년 내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1월 13일자

## 러, 콩치 어획량 11% 감소...725톤 어획 북태평양 공해 전 선단 어획량 약 12만 톤

러시아 어업자의 올해 콩치 어업은 11월 17일에 종료되었다. 어획량은 725톤을 기록하였다. 지난 어기 실적에 비하면 11% 감소하였다.

일본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년 공해에서 286톤, 자국 EEZ에서 528톤을 어획하였다. 올해 개최된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서

이번 어기 러시아의 어획 쿼터는 2,457톤으로 배정되었다.

북태평양 공해에서 일본 선단과 외국 선단을 포함한 올해 어기 총 어획량은 11월 8일 시점 누계 12만 3,300톤으로 전해졌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1월 25일자

# 日-러 어업 협상, 2026년 내 합의 불투명

## 기한 넘기며 장기화 조짐

일본과 러시아가 올해 연례 어업협상을 예정된 기한까지 타결하지 못하면서, 2024~2025년에 이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42차 일-러 어업위원회 회의는 1984년 일본-소련 지선근해어업 협정에 근거해 설치된 공식 협의체로, 올해 회의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5일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026년 쿼터를 포함한 조업 조건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일본 수산청 대변인은 협상 결렬 사실을 확인하며 “외교 협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어획량 배분 등 핵심 조업 조건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홋카이도의 업계 관계자 또한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하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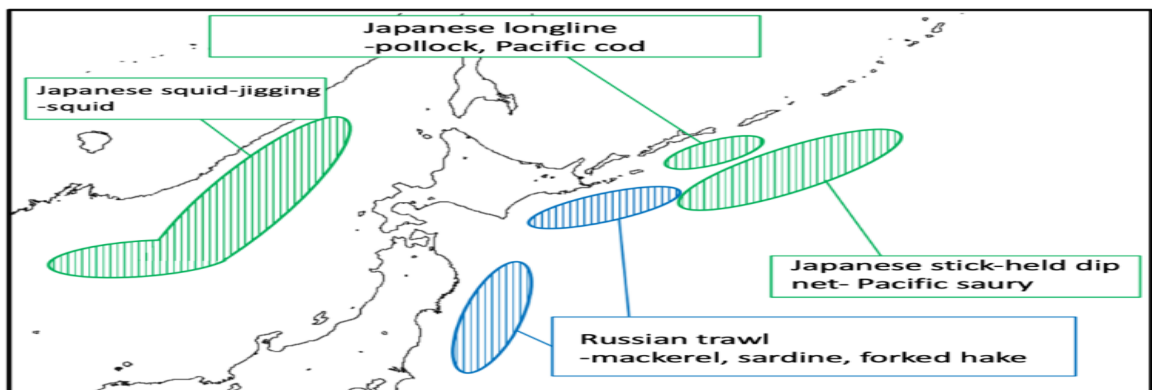
통상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EEZ 내 입어 조건 및 쿼터 배분에 대해 12월 말까지 합의해 왔다. 그러나 작년 협상은 2024년 11월 회의 결렬에 이어 12월 재협상도 실패했고, 결국 2025년 5월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양측이 확정된 2025년 공동 쿼터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2만 2,000톤에 불과했다. 당시 일본 수산청은 일본 측 주요 어종인 꽁치와 러시아 측 고등어 자원량을 둘러싼 이견이 협상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올해 협상의 구체적 쟁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결렬 당시에는 러시아 수역 내 일본 어선의 꽁치·오징어·태평양 대구 쿼터와 일본 EEZ 내 러시아 어선의 고등어·정어리 쿼터 분배가 핵심 쟁점이었다. 올해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협상 지연은 동해 및 북서태평양 조업 선단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선단들은 2026년 조업 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EEZ 입어권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합의가 다시 지연되면 조업 일정과 공급망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0일자



〈 일본 선단과 러시아 선단의 목표 어종 어장도 〉

## CCAMLR, 전제 규정 승인...MPA 지정은 무산 노르웨이·NGO 등 “내년 연례회의 위한 토대 마련” 평가

남극크릴 어업을 관장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10월 31일 종료된 연례회의에서 다수의 규제안과 보존 조치를 채택하지 못했다. CCAMLR는 27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만 조치가 승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남극 인근 해양보호구역(MPA) 지정안과 어업 재편 관련 제안들이 부결되었다. 올해 회의에서 실제로 채택된 조치는 2027/28 어기부터 CCAMLR 공개 명부에 등록된 선박만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정 하나뿐이며, 9~12월에 적용될 다음 남극크릴 어기 규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크릴 조업 기업인 노르웨이 에이커 바이오마린(Aker BioMarine)과 자매회사 에이커크릴(Aker Krill Company)은 회의 종료 후 성명을 통해 “비록 여러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회원국 간 의견 접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매츠 요한센 CEO는 회의 후반부에 오랜 기간 입장이 대립했던 국가들 간에도 실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남극 MPA가 승인될 경우 자사가 조업 중인 수역의 약 70%에서 어업이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남극 MPA 지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한센 CEO는 이번 회의가 2026년 연례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현실화할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남은 12개월간의 협력과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여기에는 중국·우크라이나·노르웨이에서 운용하는 12척의 크릴 조업선이 특정 해역으로 조업을 집중하면서 처음으로 어획 한도인 62만 톤에 도달했다. 이는 2024년 CCAMLR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관리 협약이 연장되지 못해 관리 공백이 발생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크릴은 오메가-3 원료, 어분, 애완동물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해양생물 자원으로, 최근 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환경단체 ASOC는 올해 회의에서 보존 조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존 지향적 회원국 간 연대가 강화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ASOC는 칠레, 아르헨티나, EU,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표단이 CCAMLR 규제를 최근 체결된 공해조약 및 2030년 해양 30% 보호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번 회의가 주저하던 회원국을 설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2026년 회의에서 남극 MPA 지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MPA가 통과될 경우 남빙양 약 26%, 즉 미국 캘리포니아주 크기에 근접한 광범위한 해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ASOC는 그러나 올해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될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5일자

## 美 'FISH' 법안, 하원 청문회서 초당적 지지 확보

### IUU 관련 외국 수산물 원천차단 목적 법안

IUU 어업 대응을 위한 법안이 11월 19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산하 수자원·야생동물·수산 소위원회 회의 첫 청문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5월 6일 덴 크렌쇼(공화당·텍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외국 불법 수산물 어획 근절법(일명 'FISH' 법, Fighting Foreign Illegal Seafood Harvest Act, HB 3756)'은 IUU 활동에 연루된 선박 목록 작성, 미 해안경비대 단속 강화, 그리고 IUU 어업 퇴치를 위한 미국의 국제적 기여 확대를 골자로 한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세스 매거지너(민주당·로드 아일랜드) 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해외 경쟁을 단속한다는 점에서 상·하원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규칙을 어기는 악의적 행위자들을 단속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발 호일(민주당·오리건) 의원은 매년 1,100만 톤의 불법 어획 수산물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추정치에 따르면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도인 2019년 한 해에만 24억 달러 규모의 불법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해리엇 헤이그먼(공화당·와이오밍) 의원 역시 법안을 높이 평가하며 통과를 촉구하였다.

덴 설리번(공화당·알래스카)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30일 상원 상무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상원 본회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별도로 FISH 법의 문구가 지난 10월 통과된 상원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었으나, 하원 버전의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며 12월 표결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수산업계를 대변하는 무역단체인 전미수산협회(NFI)의 차기 회장 저스틴 콘래드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콘래드 회장은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NFI가 줄곧 반대해 온 미국의 기존 프로그램인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SIMP)'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였다. SIMP는 수입업체들이 IUU 어업 연루 위험이 높은 13개 어종에 대한 어획, 양륙, 공급망 관련 상세 자료를 수집, 검증,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NFI의 개빈 기븐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SIMP와 FISH 법안의 차이에 대해 "FISH 법은 IUU를 범한 행위 주체를 원천적으로 타격하여 어획물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능동적으로 차단하려는 반면, SIMP는 제품이 이미 어획되어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명백히 실패한 프로그램이며, 방대한 보고 및 감사 관료주의만 양산하는데 성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 내 수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19개 단체 연합은 11월 19일 소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FISH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단체들은 IUU 선박을 명단에 기록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수산물의 식별을 개선하는 것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5일자

## FAO “2025년 세계 어패류 생산 1.7% 증가 예상”

### 자연산 소폭 증가, 양식 증가폭 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식량 전망’에서 2025년 전 세계 어패류 생산량이 1억 9,7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연산 어획량은 0.7% 늘어 9,29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일부 대구·해덕·고등어 자원 감소로 어획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양식 생산량은 1억 410만 톤으로 2.7% 증가하며 전체 공급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잉어류, 연어·송어, 메기, 새우 등 주요 양식 품목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산물 무역은 2025년에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새우·참치·연어·송어 등 주력 품목의 수요

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서어류와 부어류는 어획 감소로 무역량이 축소된 반면, 베트남·에콰도르·인도의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FAO 가격지수는 상반기 하락 후 회복해 9월에는 연초 수준을 넘어섰다. 자연산 어류 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흰살생선은 11포인트, 일부 부어류는 50포인트 상승했다. 양식에서는 새우 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연어는 11포인트 하락하는 등 품목별 차별성이 나타났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1월 20일자

## 러-노르웨이 바렌츠해 쿼터 회의, 12월 개최

### 러, 제재 조치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양자 어업 회담이 12월 8~12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그러나 회담 일정이 확정된 직후 러시아는 노르웨이의 자국 기업 제재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콜로프 러시아 수산청 부청장은 “제재 해제 논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며,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르웨이 선단의 러시아 EEZ 진입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EU와 함께 러시아 기업 노레보와 무르만 씨푸드에 간첩 혐의를 적용해 EEZ 내 조업을 금지했으며, 두 기업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해당 조치를 “근거 없는 제재”라고 반박해 왔다.

러시아는 지난 8월에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바렌츠해 쿼터의 일방적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또한 10월 러시아 수산박람회에서 셰스타코프 수산청장은 노르웨이와의 쿼터 배분 방식 재검토를 언급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바렌츠해 저서어류 공동쿼터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대구 자원 감소 상황 속에서 양국이 내년 시즌 독자적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1일자

## 칠레, 中 선단 EEZ 대거 진입에 우려 표명 中 선박 올해 들어 급증

칠레 수산 당국은 최근 외국 선단, 특히 중국 국적 선단의 자국 EEZ 진입 시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감시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칠레 규제를 준수하는 참치 선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칠레 항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그프리도 라미레스 칠레 해상안보운영국장은 10월, 칠레 EEZ 내부 및 EEZ 인접 공해에서 조업하는 다수 국가 선단의 활동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2025년 동안 칠레 해군의 검문을 받은 중국 선박이 총 118척에 달해, 2024년의 8척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하며 더욱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중국 선단이 칠레 EEZ 내에서 실제로 IUU 어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미레스 국장은 외국 선단의 칠레 EEZ 및 인접 공해 활동이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라

고 설명했다. 칠레 정부는 2004년부터 자국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 선박의 칠레 입항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칠레에서는 8개 항구가 외국 선박 입항을 허가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및 파나마 국적의 선망선과 일부 중국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규정 준수 조건 하에 입항 허가를 받은 상태다. 2024~2025년 동안 칠레 정부가 받은 총 175건의 입항 허가 요청 중 83%가 중국 선박이었다.

한편, NGO 오세아나(Oceana) 칠레 지부는 중국 선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정 검토 및 갱신 △해군·수산당국 감시·통제 예산 증액 △외국 선단 검문 보고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 출처: Intrafish.com, 2025년 11월 4일자

###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 스: 02-589-1630/1631 ○ 메 일: kosfa@kosfa.org



## 美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 11월 13일 종료 NOAA 등 업무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 정부 자금 지원 법안에 서명하며 한 달 이상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참치와 기타 어족 자원을 감독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산하 국립해양수산청(NMFS)을 비롯한 주요 연방 기관들이 정상 운영으로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하원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서명했으며, 법안은 연방 예산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2025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셧다운 기간 NOAA 등 여러 연방 기관의 직원 수천 명은 무급 상태로 근무해야 했고, 일부는 초과 근무까지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NOAA는 기상 예보와 폭풍 경보 등 필수 공공 안전 업무를 유지했으나, 과학자·행정 직원·연구 인력 등 상당수는 '일시 해고'로 분류되었다. 사태 종료 직후인 13일 기준, 이들의 복귀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연구진이 단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13일자 및 다수 외신

## 베트남, 개정된 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계획 승인 보조금 정보 추적·관리 디지털 시스템 구축 추진

베트남 정부가 개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유해 수산보조금 협정의 이행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결정은 지난 11월 16일 베트남 부총리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으며, 2022년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포함한다. 협정의 핵심은 남획을 조장하거나 IUU 어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데 있다.

이행 계획은 어업 관리 체계, 수산자원 평가,

IUU 위반 사례,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체계를 최신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에 기존 규정 개정과 신규 지침 마련을 지시했으며, 보조금 관련 정보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베트남은 앞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국제적 기술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 기관·어업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은 국비와 외부 재원을 활용해 2025년 말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1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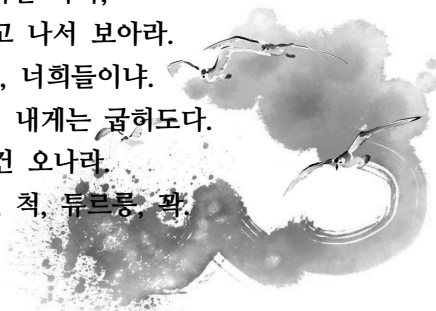
## 바다(海)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처.....르씩, 처.....르씩, 척, 싹.....아.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태산 같은 높은 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처.....르씩, 처.....르씩, 척, 튜르릉, 짹.

처.....르씩, 처.....르씩, 척, 싹.....아.  
 내게는, 아모 짓,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모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처.....르씩, 처.....르씩, 척, 튜르릉, 짹.

처.....르씩, 처.....르씩, 척, 싹.....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던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팔룬(拿破崙), 너희들이나.  
 누구 누구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굽혀도다.  
 나히구 겨를 이 있건 오나라.  
 처.....르씩, 처.....르씩, 척, 튜르릉, 짹.





## 11월 오징어 국내 동향

### 연근해·원양 생산 감소에도 수요 둔화로 가격 하락

#### ❖ 생산동향(11월 오징어 생산, 전월 및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11월 오징어 생산량은 연근해산 생산량 및 원양산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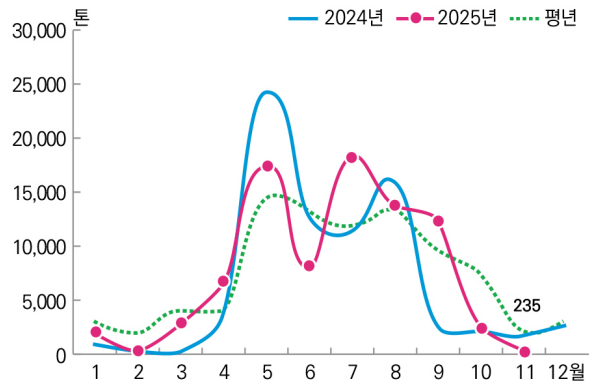
연근해산 생산량은 어장 형성이 원활하지 않아 전월의 1/3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66.4% 적었다.

※ 11월 오징어채낚기 조업척수 72척(전년 254척)

해역별로 살펴보면 남해권 및 동해권 위판 비중이 각각 46.8%, 45.7%로 비슷했으며, 서해권은 7.4%에 그쳤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139톤으로 전월 및 평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한편, 11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반입량은 5만 3,595톤으로 평년보다 5.3% 많았으나, 작년 동기간보다는 16.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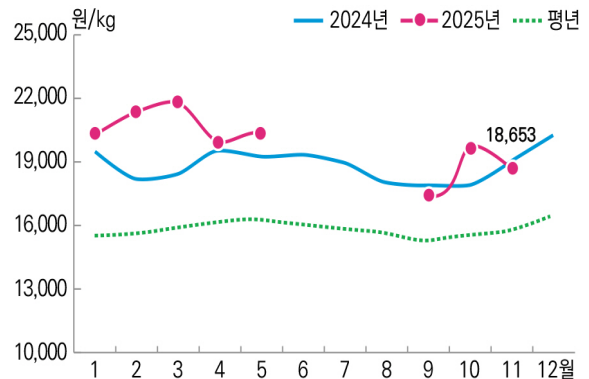


#### ❖ 가격동향(생산 감소에도 가격 하락세 지속)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연근해산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18.8% 하락한 kg당 7,951원이었으며, 오징어(신선냉장) 도매가격 또한 전월 대비 12.3% 하락했다.

연근해산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도 전월 대비 7.1% 하락했는데, 이는 전월 상승에 높게 형성되었던 가격이 추석 명절 이후 수요가 줄면서 10월 하순부터 하락하여 11월 중순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연근해산 오징어(냉동) 및 원양산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11월에 일부 지역에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전월 대비 각각 5.2%, 2.6% 하락했다.



❖ 수출입동향(11월 오징어 수출입량 전월 대비 큰 폭 증가)

11월 오징어 수출량은 연휴 이후 회복되면서 전월 대비 55.8% 증가한 3,315톤이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6.9%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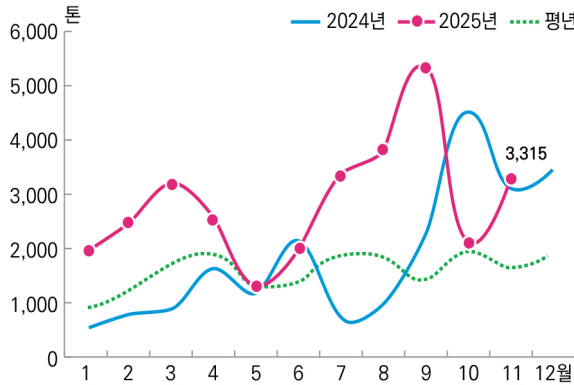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전월 대비 크게 늘었는데, 중국, 미국, 태국, 캐나다 등의 순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었다.

11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6,272톤으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연휴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 대비 46.1% 증가했는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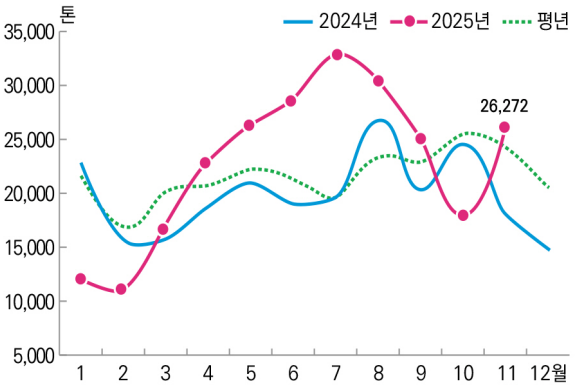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월 대비 증가한 가운데, 페루로부터의 수입량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 및 기타 제품이 각각 1만 1,470톤, 1만 1,38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미오징어(3,008톤), 건조오징어(397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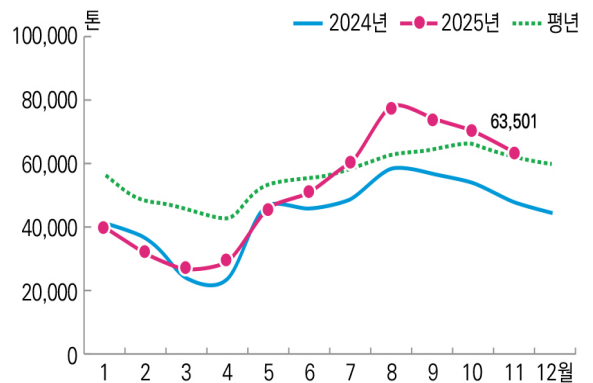


❖ 재고동향(11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1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연근해산 생산 감소 및 원양산 반입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9.7% 감소한 6만 3,501톤이었다.

이 중 연근해산은 1만 5,602톤으로 전월 대비 8.2% 감소했으며, 원양산은 10.2% 감소한 4만 7,899톤이었다.

한편, 작년 동월보다는 30% 이상 많았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2월호



## 11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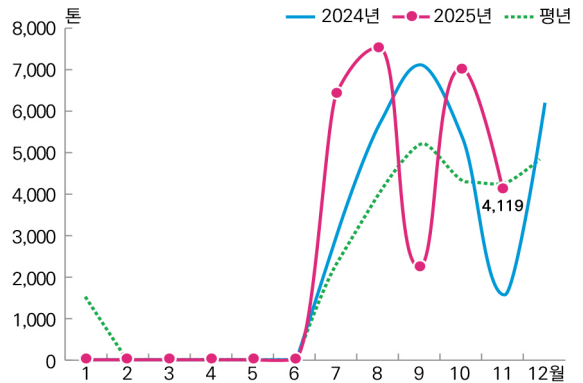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생산량 42% 감소, 수입량 6% 증가

#### ❖ 생산동향(11월 원양명태, 전월보다 42% 감소)

11월 원양명태 생산량은 전월보다 41.6% 감소한 4,119톤이었으나, 전년 동기보다 169.4% 많았다.

러시아 해역에 조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반입되는 물량은 전월보다 감소했으며, 잔여 물량은 12월 중 조업선과 함께 반입될 예정이다.

1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2만 7,398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0.4%, 36.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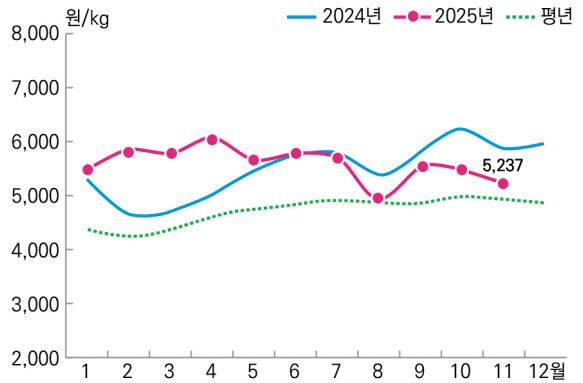


#### ❖ 가격동향(11월 냉동명태 소비자가격, 5% 하락)

11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명태 국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 및 전년 동월보다 각각 4.6%, 2.5% 상승한 kg당 2,267원이었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237원으로 전월 대비 4.8% 하락했다.

이는 명태(냉동) 대품 크기의 가격은 전월 대비 10.4% 상승했으나, 전월에 형성되지 않았던 중품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수출입동향(11월 수출량 급감, 수입단가 전월 대비 하락)

11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 및 전년 동월보다 각각 73.9%, 47.8% 감소한 3,326톤이었다.

이는 지난달 중국으로 냉동명태 및 냉동연육 수출이 크게 늘었던 것과 달리, 11월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중국으로 냉동명태 및 냉동연육은 각각 672톤, 270톤, 태국으로 냉동연육이 2,095톤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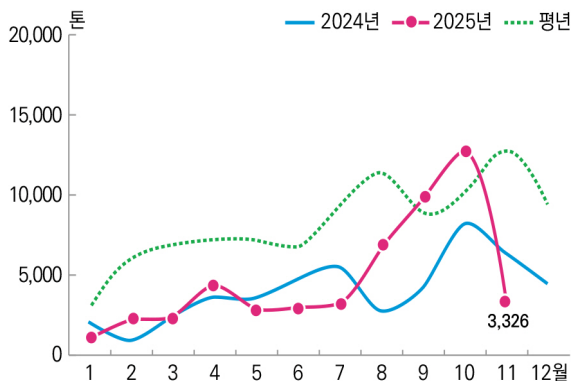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전월보다 5.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3.9% 적은 2만 9,288톤이었다.

국가와 제품 형태별 수입량은 러시아산 냉동명태 6,754톤, 냉동연육 6,542톤, 냉동필렛 5,013톤, 미국산 냉동연육 7,713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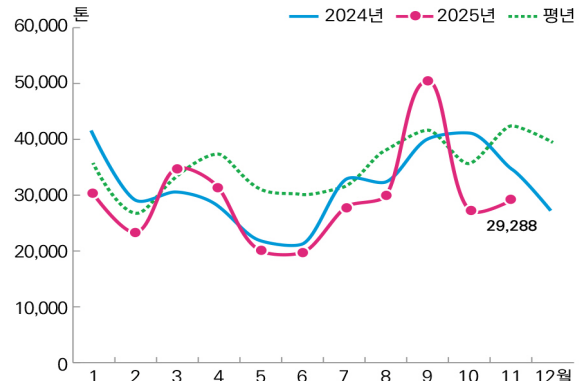
냉동명태 수입단가는 kg당 1.20달러로 전월보다 2.8% 하락했으나, 작년(1.05\$/kg) 대비 높았다.

11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32만 4,519톤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7.3%, 15.7%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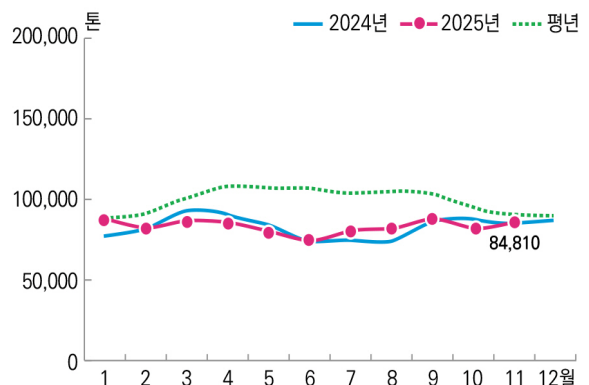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1월 재고량, 전월 대비 소폭 증가)

11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월 대비 3.6% 증가한 8만 4,810톤이었다.

한편, 전년 동월과는 비슷했으나, 평년 동월보다는 7.0% 적은 양이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2월호

#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전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상무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이성재 상무 김효상 차장 조성주 과장 김민재 주임	589-1603 589-1609 589-1608 589-1622	총괄(겸직)
			기획
			홍보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김영수 과장 최은혁 대리	589-1610 589-1611 589-1619	총괄
			무역제도, 수출통계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웅 과장 조성환 과장 이인수 사원	589-1605 589-1606 589-1607	총무, 회계
			서무관리, 차량운영
			원양어업경영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박재운 부장 최봉준 과장 백상진 대리 김지원 사원	589-1612 589-1613 589-1614 589-1620	총괄
			국제협력
			참치선망
			참치연승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김현애 과장	051-253-3388	총괄
			수출, 반입
			차량계량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최광준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센터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이승두 센터장 김선미 팀장 김단비 행정관	044-868-7360 044-868-7834 044-868-7837	총괄
			행정 총괄, 기획
			예산, 인사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장하영 행정관	044-868-7836 044-868-7838	ODA, 명예수산물
			통계, OFIS

센터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4 044-868-7363	국제(수산)기구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	-	044-868-7831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국제(수산)기구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연락처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t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사모아	허성립 수산물관	1684-733-4567 dldms8424@naver.com

<b>발행</b>	2025년 12월 15일
<b>원양산업</b>	<b>등록일자</b> 1981년 8월 27일
<b>제1188호</b>	<b>등록번호</b> 서초라-00012호
<b>발행처</b>	특수협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b>발행인</b>	<b>김영규</b>
<b>편집인</b>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